

책을 열며 / 07 RSOI/FE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 투쟁에 다녀와서 / 이세우

특집-허세욱 열사여! 자주와 평화의 불꽃으로 영원하소서! / 허세욱 열사여! 자주와 평화의 불꽃으로 영원하소서! / 황영희

특집-허세욱 열사여! 자주와 평화의 불꽃으로 영원하소서! / 회원들의 마음에 새겨진 허세욱 열사 / 회원들

특집-허세욱 열사여! 자주와 평화의 불꽃으로 영원하소서! / 고 허세욱 열사 발인식 추도사 / 홍근수

특집-허세욱 열사여! 자주와 평화의 불꽃으로 영원하소서! / 허세욱 열사의 분신투쟁과 한미 FTA / 허영구

어둠 속으로 의정부행 막차는 떠났습니다.
영등포 역사에 핀 개나리 소리 없이 지는 밤
음지마다 산천으로 핀 선홍색 진달래도
핏빛을 지우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욱이 형님
타는 갈증 해소하던 화요일 밤
종점 마포 집 부침개도 타들어 가고
승객이 없어 힘들었던 노동분회 오던 날
분을 삼키고 형님을 삼키던 막걸리는
아직 주전자에 남아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 가고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는 동안
빈차 등을 켜고 가로수 사이로 헤매던
나 홀로 택시를 만났습니다.
폭발하는 고속엔진 뜨거운 심장
어디 한번 한강 모래톱에 처 박고 식혀보지 못한
실내 미등처럼 희미해져만 가던 형님

도심을 누비며 밤늦도록 내달리던 택시는
어디에도 멈출 곳 없었습니다.
지하방 구석에 작은 옷장 하나
가재도구 몇 그리고 동그마니 걸려있는 속옷 두엇
세상을 향해 뚫려있는 작은 창
싸늘한 방바닥에 가지런히 남겨둔
또박 또박 써내려간 마지막 부탁의 편지를
차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하나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납금 폭력에, 조세 폭력에
반도 곳곳에 자리한 미국 놈 등쌀에도
이골이 나 견딜 만하다더니
홀로 폭력에는 눈물을 보이던 형님
자식 새끼하나 두지 않고 홀연히 떠난
형님 부디 해방세상에서 이만

2007. 4. 16

췘김도수 서울평통사 회원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시인으로 민주버스노조운동을 해오고 있으며, 허세욱 열사와 노동분회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전북평통사 대표 이세우

새벽녘 어릴 적 추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는 서해안 바닷가, 우리 일행은 만리포로 향했다. 낭만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철 이른 바닷가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 바닷가로 나선 것이다.

지난 해 신고식을 단단히 치를 뒀다 예상했던 대로 경찰의 경비는 삼엄했고 바다 내음과 함께 싸늘한 감이 전해졌다. 흐린 하늘 때문인지 싸늘했던 아침 공기는 금세 훈훈한 온정의 바람으로 변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중앙과 지역, 그리고 서울의 동지들이 반갑게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밖에 올 만한 단체와 사람들은 모두 집결해 있었다. 우리 평통사 식구들은 거리 관계로 지난밤에 출발해 새벽에 도착 했다고 한다. 모두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함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눈빛들이 긴장감과 함께 더욱 빛나는 것을 보았다. ‘이놈들 오기만 해봐라. 작살을 내버리리라’는 각오가 타오르는 듯 했다. 무서워서 그랬던지 배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의 기세에 짓눌려 훈련이 중단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여기까지 달려 왔는데 배구경도 못하고 돌아가면 어찌 너무 시시해 버릴 것도 같았다.

그러나 배는 들어왔다. 5대의 상륙함이 바다 멀리 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사이 평통사의 지침에 따라 그날 함께 한 목사님들과 함께 대회를 마치고 별도의 거리 기도회를 갖기 위해 백사장과 시내 곳곳을 움직였다. 경찰력을 분산시키고 그 틈을 이용해 우리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예상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는 늦게 그 모습을 드러낸 훈련모습은 거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듯 했다. 거대한 파도보다도 더 엄청나게 우리를 공포스럽게 쳐 들어왔다. 해안선에 정렬해 있던 5대의 상륙함에서 48대의 수륙양용장갑차가 쏟아져 나와 1열 횡대로 이루어진 거침없이 물으로 달려 나왔다. 육지에 가까이 와서는 연막탄을 쏘아대며 모습을 감추더니 장갑차는 어느새 백사장을 지나 마을로 달려 나갔다. 어릴 적 이런 모습을 봤다면 신이 나서 쫓아 다녔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바다 멀리서 수륙양용장갑차가 육지를 향하여 달려 나오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노란 깃발을 들고 뛰어 나갔다.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훈련을 중단하라!’ ‘너희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라’ ‘전쟁을 멈춰라’ 외치며 뛰어 나갔는데 군인들이 쳐 놓은 철조망에 가로막혀 곧 멈출 수밖에 없었고 곧 바로 경찰들이 허겁지겁 뛰어 와서는 나를 잡아끌고 나갔다.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항의하며 대회를 진행하며 사수하는 평통사 식구들의 목소리는 어디서든 들려왔다. 요란한 굉음의 장갑차 소리가 바닷가를 소란케 했지만 우리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하늘을 진통케 하며 내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졌고 주위를 압도했다. 상황

은 그렇게 종료됐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만리포 상륙전 훈련은 RSOI/FE 연습이 대북 공격연습임을 나타내는 산 증거이며 가장 공격적인 훈련이다. 작계5027의 3단계 2부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만리포 훈련은 육, 해, 공 합동군의 북한진격과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 이름처럼 크고 아름다운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평양을 적지로 간주하고 여기를 침략하는 상륙전 연습은 누가 보더라도 평화를 비웃고 통일을 짓밟는 것이다.

각종 무기로 무장한 병력과 공군의 항공기까지 동원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연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때쯤 몸에서 생채기가 났다. 그리고 내 몸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은 스멀스멀한 느낌이 전해 졌다. 내 몸 이곳저곳을 파고들며 ‘저 요상스런 괴물이 이라크에서 수많은 민중들을 기아와 고아, 공포와 죽음으로 몰았겠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월남에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간 영혼들이 만리포 해변 위를 맴도는 것을 느꼈다. 만리포 백사장으로 기어오르는 장갑차를 보며 괴물들이 내 어미와 내 누이의 자궁을 헤집고 다니는 것 같은 착각에 깜짝 놀란다.

침략의 역사, 미국! 늘 배불리 먹고도 허기증을 느끼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미국! 그래야만 자기 체중을 유지하며 존재가치를 느끼는 나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발톱을 갈고 있는 야수의 나라 미국이 한반도를 그냥 놔줄리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먹이감이 없다. 홀라당 벗어 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해서 통째 먹으라고 내 주기까지 하니 이를 거절할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까불지 마라! 먹으려고 덤비다가 이빨 빠지고 턱 깨져서 나가 떨어진 멍청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기 바란다. 오늘은 비록 막거나 쫓아내지 못했지만 평통사가 있기에 ‘반드시 미국 너희를 내 쫓고 말리라’는 다짐을 만리포 갈매기에게만 살짝 알려주고 또 다시 울지도 모를 바닷가를 뒤로 하고 우리는 집으로 향했다.

조금 나와 바닷가를 근처에서 늦은 아침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느낌이다.

이글을 쓰고 있는 이 밤, 하늘을 바라보니 오늘따라 하늘에 짙은 구름이 끼어있다.

허세욱 열사여! 자주와 평화의 불꽃으로 영원하소서!

부천평통사 황영희

허세욱 열사가 가신 후 조용하면서도 넓게 그분에 대한 추모 대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 열사 소식을 접하고 평통사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사의 뜻을 되새기고자 분신전야에서 장례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천평통사 황영희 회원(현직 중학교 교사)이 보내주신 참가기에 몇 가지 기록들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좀더 보완하여 허세욱 열사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편집자주-

● 3월 29일 목요일

허세욱 회원, FTA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29일부터 손수 만든 1인 시위 피켓을 걸고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섬.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FTA와 같이 나라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겨우 머릿수 하나 채우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꼭 필요한’ 참여라고 생각한다.”(참여연대와의 29일 인터뷰)

● 3월 30일 금요일

허세욱 회원, 민주노동당 대표 단식농성장 텐트를 손봐줌.

오늘 밤이 FTA 협상 시한 마지막이라 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시청 앞을 향했다. 학교에 일이 있어서 집회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8시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한대기런 주취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다. 평통사 깃발을 찾아갔더니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만 집합 명령을 내려서인지 10명 정도의 아는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등록금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허세욱 동지가 다가와 찬 바닥에 앉으면 춥다고 손수 FTA 반대 글을 쓰신 스티로폼 대자보를 깔고 앉으라고 주신다. 여러 장을 써오셔서 팬찮다고 하여 해영이랑 엮치불구하고 깔고앉았다. 이후 허세욱 동지는 대자보를 메고 집회 장소를 순회하셨기 때문에 다시 만나지 못하였고 신문에서 그 얼굴을 뵈 줄은 상상도 못했다.

● 3월 31일 토요일

허세욱 회원, 농성장에 나와 투쟁하는 동지들을 격려함.

● 4월 1일 일요일 “승고한 민중을 우롱하지 마라!”

오후 3시. 허세욱 회원은 후배 동료에게 연락하여 집에 써 둔 자신의 편지글을 집회장에서 읽어줄 것을 부탁함. 이에 후배 동료는 저녁 촛불행사장에서 허세욱 회원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허세욱 회원의 집에 있던 편지를 민주노총으로 가져옴.

오후 3시 50분. 민주노총, 허세욱 회원의 편지를 확인하고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함.

오후 3시 55분. 한미 FTA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하얏트 호텔 앞, 경찰의 봉쇄 속에 향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부근 주택 골목에서 분신.

용산 중대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함. 한강성심병원, “전신 63% 화상에 51% 정도가 3도 화상이며, 환자가 분신과정에서 구호를 외쳐 기도를 통해 폐에 연기가 흡입되어 기도화상과 함께 호흡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폐에 피가 고이는 패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사망가능성이 70~80%임”이라고 발표.

● 4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 협상장인 하얏트 호텔에서 우리측 대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측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FTA타결 공식발표.

1년이 넘게 지속되며 막판 협상시한 연장을 거듭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침내 최종 타결된 2일 저녁 1천여 명의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한미 FTA 협상 무효”를 외침.

4월 1일에는 집안 일이 있어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다. 아침 신문 1면에 「FTA에 반대하며 노동자 분신」 소식을 읽었을 때 놀라고 안타까웠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사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날 우리에게 깔고 앉으라며 스티로폼을 주신 분..... 그 분의 성함이 허세욱인 줄 그 때서야 알았다. 평택 집회에서도 아주 많이 보였지만 말씀이 없으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진 못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서 하루종일 얼굴을 펼 수가 없었다. 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는데 옆자리 선생님이 말했다.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나도 살아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죽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까. 전에 수학과 모교수가 판사에게 석공을 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저렇게 성질머리가 더러우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거야.”하는 거였다. 하지만 약 10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자세히 알고 나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다. 내 옆자리 선생님도 나쁜 사람 아니고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다. 다만 FTA 폐해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현상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도착하니 계단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보였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30만 조합원 중 3천명이라도 모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1천명이 좀 안돼 보였다. 계속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 몸짓패가 나와 춤을 출 때 웬지 박자를 맞춰 줄 수가 없었다. 한상렬 목사님께서 “손끝만 난로에 닿아도 온몸이 화들짝 놀라는데 온 몸이 불 속에...”라고 하시며 내가 분신을 하지 못해서 허세욱 동지가 분신을 하셨다며 지도부의 고통을 말씀하실 때 그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며 눈물이 흘렀다.

● 4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경 ‘한미FTA저지범국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한미FTA협상 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최. 노무현 퇴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

● 4월 4일 수요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용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석운, 수술을 반대하는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허세욱 님의 치료를 포함한 이후 발생할 사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는 각서를 씀.

오후 2시경 허세욱 동지, 사체피부이식수술을 받음.

한강성심병원 앞과 광화문에서의 촛불행사가 이날부터 매일 열림. 한강성심병원 앞 천막농성 시작함.

은갓(이 표현 속에 함축된 의미를 상상할 수 있을까?) 난관을 뚫고 한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허세욱 분신대책위 상황실장 박석민 민주노총 대협실장의 상황 설명으로 한강성심병원 앞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허세욱 동지는 피부 이식수술 후 고통 감소를 위하여 1주일 동안 수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식용 사체 피부 값만 2천만원에 달하여 모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병원 앞이니만큼 우리는 박수도 함성도 자제하고 오직 허세욱 동지의 기적같은 쾌유만을 간절히 빌었다. 허세욱 동지의 활동을 사진으로 모은 슬라이드를 상영했는데 늘 말없음표 같은 표정을 뵈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모든 투쟁의 현장에 계셨지만 항상 뒤편에 자리하셨기에 사진이 별로 없다고 했다. 서울평통사 막내 슬기양의 편지에서 500원 짜리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들을 때 허세욱 동지의 천진난만함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 때 민주노총의 어떤 분이 분신 현장에서 찾은 500원 짜리 동전 이야기와 이어지며 가슴이 아려왔다.

서울 평통사 서영석 대표는 쾌유를 바라는 이야기를 통해 “허세욱 회원이 우리에게 바랐던 것이 무엇이였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 번뇌를 하였을까? 우리들은 그 분이 바랐던 한미 FTA 반대 투쟁과 누구나 밝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서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전국적으로 반대 강연을 다녔던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 씨가 허세욱 님을 생각하며 쓴 글과 향린교회 나성국 목사의 글이 낭독되었다. 동지의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한 송이씩 꽃을 꽃병에 모으며 앞으로 매일 8시에 촛불집회를 하기로 하고 집회를 마쳤다.

● 4월 5일 목요일, 한강 성심병원 앞

기독교인들 주최로 한미 FTA체결 무효와 허세욱 회원의 조속한 쾌유를 바라는 촛불행사가 진행됨.

관악주민연대 등 허세욱 동지의 쾌유를 비는 발길이 끊이지 않음.

● 4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10분에 병원에 도착하니 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그분들이 모두 가고, 사람이 적어서 오늘 8시 촛불집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중생 촛불집회 때는 세 사람이 모여 한 적도 있다고 집회를 열기로 했다. 참가자들이 십여 명이다 보니 덩글게 둘러서서 자신을 소개하고 동지의 쾌유를 비는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의 발언을 듣기만 하다가 말을 하려니 힘들었다.

“세욱이 형”이라고 부르는 택시 노동자가 “운전만 성실히 하고 조합 활동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인 줄 처음 알았고 자신이 부끄럽다”며 형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셨다.

● 4월 7일 토요일, 대학로 집회

김현숙 사무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늘 집회 때 모금을 할 예정인데 부천에서 일찍 올라갈 사람이 없으니 일찍 갈 수 있으면 모금을 도와주라고. 인도에 부스를 설치하고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마이크를 잡은 유영재 미군문제팀장님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진 허세욱 동지를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멈춰 서서 편지글을 읽어 보는 사람은 있었지만 전체 대회에서 모금이 있어서인지 그리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활동 속보를 보니 17만원이 모금되었다고 한다.

대학로 집회가 끝나고 거리행진이 시작될 때까지 모금을 하느라 인도에 서있었기 때문에 집회에 집중하지 못했다. 도중에 가수 박준이 나와서 “노무현 개새끼”를 선창하여 모두 따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초등학교 두 명이 우리 모금 부스에 와서 내용을 읽어보다가 한 명이 친구에게 “FTA가 뭐야?”하고 물었다. “FTA하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진다는데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친구가 말하자 “아! 그래서 아까 대통령 욕 했구나” 하며 걸어갔다.

● 4월 8일 일요일

서울평통사 서영석 대표 등 6인이 병원 앞에서 촛불 켜

● 4월 9일 월요일, 모금

새로 학교를 옮긴 탓에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약간 망설였지만 모든 선생님들에게 쪽지를 띄우기로 결정했다. 허세욱 동지는 유서에 동료들이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모금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돌아가시면서까지 동료들 걱정을. ㅠ.ㅠ) 선생님들은 정규직이니까.... 모금을 하게 된 경위를 짧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했다.

파일은 상황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전교조 남부 지회장인 조남규 선생님이 전교조 전체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남부지회 소속 학교 분회장 들에게 보낸 “FTA 반대하며 분신하신 허세욱 동지를 돕시다”를 그대로 사용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한 부서에 한 사람씩은 알기 때문에 봉투를 하나씩 가져다드리면서 자기 부서에 이야기하여 걷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 할 수 있다는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말하기 어렵다는 선생님 부서는 내가 직접 이야기 하여 걷기 시작했다.

16일, 사무실에 갔을 때 장례식 이틀 전이라 주정숙 대표님이 “오늘 집회에 부천 평통사에서 1차로 40만원을 모금해 가야 하는데...”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다. 주대표님께 “바로 그 금액이 여기 있어요” 하고 드렸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당황하여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서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듯하다.

● 4월 10일 화요일

“우리 민중 다 죽이는 망국적 한미FTA 폐기하라! 허세욱 동지 뜻 이어받아 한미FTA 저지하자!” 제91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개최

● 4월 11일 수요일

평통사, 허세욱 회원 쾌유기원 촛불행사 개최. 50여명의 참가자들, 빗속에 촛불을 켜고 쾌

유를 기원하는 엽서를 씀.

광화문에서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촛불행사 개최. 오종렬, 한상렬 등 FTA범국본 대표자들 참가.

● 4월 12일 목요일

병원 앞 농성장, 4일부터 진행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평통사 등 동료들의 밤샘 쉼터 기원 계속됨.

● 4월 13일 금요일

FTA범국본, 전국사회비상대표자회의 개최. 6월 말 한미 FTA무효 총궐기 투쟁 결의

● 4월 14일 토요일

한강성심병원 앞,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동작구위원회, 상도동 철거민, 한겨레 신문 홍세화 기획위원 등 100여 명 참석 쉼터 기원

부산, 한미 FTA타결 무효 국회비준 반대 부산시민 2차 촛불문화제 개최

● 4월 15일 일요일, 벚꽃 축제에서 꽃잎이 지다

쉼터를 기원하는 동지들의 바람도 헛되이, 병상에서의 2주간의 사투 끝에 허세욱 회원, 숨을 거둠.

‘허세욱 장례대책위’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반FTA투쟁을 확대전개하기로 하고 18일 자체 장례식, 21일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하기로 결정.

부천 도당산 벚꽃 축제에서 평통사를 알리기 위하여 이어울림이 노래 공연을 했다. 우리가 여섯 곡을 부르는 동안 다른 분회원들이 평통사를 알리는 피켓과 풍선을 들고 응원을 했다. 활짝 핀 벚꽃과 화창한 햇살 속에 공연이 끝났을 때 가슴 무너지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허세욱 동지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수술 결과가 좋다고 하여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름같은 벚꽃에 등등 떠다니던 마음이 땅바닥으로 내리꽂히며 현실로 돌아왔다.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투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 분의 힘들었던 삶과 치열했던 투쟁과 고통스런 분신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슬픔이 차오르다 보니 고통을 두려워하는 나로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면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돌아가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4월 16일 월요일, <가족>에 대하여

병원측, 대책위와 아무런 협의 없이 가족들에게 고인의 시신을 내어줌. 가족들, 동지들의 조문을 막고 오전 11시경에 화장함. 한독노조 동료들, 바람에 흩날린 유골을 수습함.

제목만 써놓고 먹먹함에 뭐라 써야할지 모르겠다. 허세욱 동지가 돌아가신 후, 아니 분신 후부터 그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큰 슬픔을 느낀다. 동지는 자신의 가족과 같은 민중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막상 그 가족들은 삶에 치이느라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지 파악할 겨를이 없었나보다. 어떤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족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까?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

는 게 아닐까? 소망의 가장 결집된 형태인 유언조차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하는 막무가내 행동을 어찌 해석해야 할까?

한강 성심병원 앞에서 허세욱 동지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경기도 위원장은 허세욱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을 빼돌려 돌아가신 지 하루 만에 화장한 사람은 노무현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무슨 힘이 있고 가족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일을 벌이겠는가. 아무리 그렇다한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평통사 등의 대표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빗속에 무릎 꿇는 조문도 거절하고 소박한 유골함도 없이 비닐 봉지에 유골을 담아 합사함에 부어버린 사람들.....

● 4월 17일 화요일

광화문 마지막 추모제, 동료들이 수습해온 유골과 동료들이 모아낸 유품으로 입관

● 4월 18일 수요일,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 장례식 날

한강성심병원 발인 - 민주노총 앞 노제 - 관악주민연대, 한독택시 앞 노제 - 하얏트 호텔 앞 노제 - 용산 미군기지 앞 노제 - 시청 앞 범국민 추모식 - 마석 모란공원 안장.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고 허세욱 장례식, 광화문 인근 700여 촛불로 마무리

마음은 함께 했지만 직장에 매인 몸이라 저녁이 되어서야 추모제에 참석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서야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추도사가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꽃다지의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평생 어렵게 사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 절박함에 못 이겨 분신으로 돌아가신 동지의 아픔이 떠올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가족의 감사는커녕 배척을 받아 뺏가루를 담은 종이봉투를 넣은 빈 관으로 장례를 치르느라 새벽부터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는 하늘이 알아주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애도함으로 모든 예의를 다해 가시는 길을 애도함에 허세욱 동지도 위로가 되셨을 것이다.

백 사람이 진심으로 울어주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고 한다. 백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한 허세욱 동지는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차별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18일 낮 12시경, 방한 중인 이탈리아 로마노 프로디 총리와 의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는 한-EU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조속한 FTA 협상 개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 4월 21일 토요일

평택 황새울 일대에서 평통사, 평택범대위, 팽성주민 등 50여명, 고 허세욱 열사의 삼우제를 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700여명의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함.

광주전남, 순천 등 지역에서도 추모집회 개최.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한미FTA에 합의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사를 저버리고 망국적 한미FTA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한국의 정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저지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민족민주노동열사 고 허세욱 동지 약력

- 1953년 5월 9일, 경기 안성에서 9남매 중 다섯째로 출생
중학교 때 서울로 상경, 막걸리, 꽃, 박카스 등 온갖 배달 일을 함.
- 1991년 한독운수 입사, 택시 운전 시작
- 1994년 40세가 넘어 봉천동 철거투쟁으로 사회운동에 입문
서울 봉천6동 철거민으로 지내던 시절, 강제철거에 맞서 세입자 대책을 행정당국에 요구하는 빈민운동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됨.
허세욱 열사는 “참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요. 1995년 봉천6동 철거촌에 살 때였죠.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 때라 그날이 그날 같았죠. 빈민운동을 하던 강인남이라는 여자 간사가 용역깡패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그냥 구경만 했었죠. 그 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회상하곤 하심.
- 이 사건을 계기로 1995년 관악주민연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1998년에는 참여연대, 2000년에는 민주노동당에 입당하여 사회운동을 적극 펼침
- 2002년 한독택시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앞장서고, 민주택시연맹 한독분회 대의원 겸 통일부장 역임
- 2002년 6월 13일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죽은 후, 살인미군 처벌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 투쟁에 적극 참가
열사는 살인 미군들이 무죄선고 후 범국민촛불행사에 매일 참여했으며 주위의 지인들에게 “나중에 미군이 세운 추모비 대신 내 퇴직금으로 꼭 두 여중생 추모비를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심.
F-15K 도입반대 활동에도 참가하심.
- 두 여중생의 죽음 이후 반미, 민족문제에 눈을 뜬 열사는 2004년 평통사에 가입하고 용산기지이전비용 한국부담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 반미투쟁에 적극 참가
2004년 평통사에 가입한 열사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 외통부, 국방부 앞 농성장을 찾아 “손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을 담은 유인물을 1천부씩 가져가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와 사이다 1병을 슬며시 내밀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유인물을 또 얻어갈 수 없냐?”고 묻곤 하심. 이렇듯 열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

담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활동을 열정적으로 전개하심.

열사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근무 중에 차를 세워두면서까지 서울평통사 노동분회에서 활동하셨고, 2006년 5월 4일에는 평통사 회원들과 평택 황새울 별관 철조망 설치 반대 투쟁을 전개하다 연행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이외에도 열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반대, 방위비분담금 삭감 및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 농성, 1인시위에 적극 참가하심.

● 망국적인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학습과 투쟁을 전개

열사께서는 고된 노동과 박봉의 일상을 실천의 장으로 삼으셨고, 잠을 쪼개 실천하고 공부하셨다. 신문에 빨간 사인펜으로 줄을 쳐가며 공부한 열사의 흔적과 꼼꼼하게 모아둔 FTA 관련 자료들은 열사의 피나는 학습과정을 보여줌.

운전을 하다가도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참았다가, 미 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들르고 한미FTA폐기를 위해 농성중인 대표단들을 찾았으며 농성 천막을 손보곤 하심. 한미 FTA 타결이 임박한 3월 29~30일에는 직접 만든 1인시위 피켓을 메고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심.

● 2007년 4월 1일 오후 3시 55분, 협상 최종 시한을 넘겨가며 강행되고 있는 한 한미 FTA 타결을 저지하기 위해, 열사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불사름

● 2007년 4월 15일 오전 11시 26분 동지들의 절절한 쾌유염원에도 불구하고 열사께서는 한강성심병원에서 운명

● 2007년 4월 18일 민족민주노동열사장으로 장례를 치른 후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역에 안치

회원들의 마음에 새겨진 허세옥 열사

5월 항쟁 이후 젊은이들을 앞에 보내고 살아남아 가신 님들의 뒤편까지 일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돌이켜 보면 마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허세옥 열사의 노제와 추모식, 그리고 그분의 유서를 접하면서 허세옥 열사야말로 이 땅 반도의 민중 모순과 민족 모순을 한 몸에 온통 안고 살면서 30여 성상을 이 모순의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분투하다 오히려 이 모순이 총체적으로 심화되는 때라고 생각되는 순간 온몸을 불살라 항거하셨습니다.

그 분의 삶! 빈농가정에서 태어나 서울에 올라와 갖가지 배달부 일, 한독택시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빈민운동의 일환인 철거민투쟁, 관악주민연대에 가입하여 주민연대활동, 참여연대에 가입하여 시민운동,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민중의 정치 참여 실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 가입하여 반전평화와 통일운동 참여, 민주노총의 모범조합원 활동, 그리고 한미 FTA 저지투쟁에 참여하다가 지난 4월 1일 우리 조국의 주권이 총체적으로 미국에게 넘겨진다 생각되자 온몸을 불사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 지도자들 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지만 허세옥 열사처럼 우리 민중의 수많은 삶을 몸소 살아가며 투쟁한 분을 어느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유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으니 나를 위해 모금하지 말라”, “내가 죽으면 화장하여 미군기지 주변에 뿌려 달라”, “여중생의 한을 풀자”는 당부는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적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 열사는 생전 사후 철저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국가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이란 사람들이 한때 치료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시체를 빼돌리고 장례는커녕 조문조차 못하게 하는 등 허 열사를 두 번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 분의 뜻을 이어 “한미FTA 꼭 저지합니다!” “미군기지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여중생들의 한을 풀어줍시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없어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광주전남 평통사 배종렬 공동대표>

수줍게 웃으시던 얼굴, 어린 사람과도 두 손을 꼬옥 쥐며 허리 굽혀 인사하시는 겸손함, 노동분회 뒤풀이자리에서 술 한 잔 하시고 택시노동자의 힘겨움 또는 분열하는 운동대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던 모습, 집회에 참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고했다며 전화를 해오곤 했던 그 분. 허세옥 선생님은 그렇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유인물을 받아가시면서 효순이 미선이에 관한 유인물도 거의 다 모아놨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는데,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나중으로 미뤄던 것이 후회됩니다.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놈들에게 평택마저 기지로 내어줄 순 없다며, 그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손수 맞춰와 대추분교에 걸어 놓으셨죠.

작년 5월 4일. 대추 초등학교가 무너지고, 황새울에 철조망이 쳐졌던 지옥같은 날. 도두리를 지나던 군용 트럭 대열 앞에 드러누워 아름다운 들녘에 철망이 쳐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 나섰다가 결국 연행까지 되셨죠. 그렇게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이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며 절망과 분노로 얼룩졌던 선생님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우리 서울평통사의 노동분회원이고, 택시노동자이며, 민중과 평화를 사랑하고, 세상 앞에 당
당했던 허세욱님.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서울평통사 황윤미>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싸움이 한창이던 2006년 초여름. 평택은 철조망에 둘러 쌓여진 전
쟁터와 다름 없었다. 고 허세욱 동지는 비번이셨는지 아니면 일부러 배차를 빼셨는지는 확
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따스한 평택 햇살을 받으며 평통사의 집 앞에 앉아 계셨다. 그때
만 하더라도 집회 장소나 촛불집회장에서 뵙고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
고 허세욱 동지는 착한 옆집 아저씨였으며, 항상 말씀을 하실때는 존대말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났다.

나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배운것도 없고, 가진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인데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던가 어찌던가, 무언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

그때는 잘 몰랐다. 그저 열심히 투쟁 하겠다는 말씀이겠거니...했다. 나는 기억력이 참 나쁘
다. 내가 기억하려고 긴장하고 애를 써야 간신히 놓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수첩에 적어
놓아야 겨우 기억할 수 있는 내가 어찌 그 당시에 말씀 하셨던 고 허세욱 동지의 말이 내
기억에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허세욱 동지여!

세상에 한번, 단 한번뿐인 인생.

다시는 되돌아 오지 않는 인생.

저도 동지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세상에 의미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편히 잠드세요

<인천평통사 유정섭>

내가 허세욱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 다살이 풍물행사인지 집회인지에서부터인 거
같다. 그 후 항상 먼저 이름을 부르시며 악수를 청하시곤 하셨다.

작년 늦은 봄 내가 대추리 평통사 집에서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허 선생님이 “운영
일 동지가 지킴이 활동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시죠?”하시면서 생담 몇 마리와 술을 사오셨
다. 악수를 청하셨다. 답을 삶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웃에 있는 들소리 방송국(성공회대
학생들) 사람들을 불렀다.

함께 술과 고기를 나눠먹으면서 허세욱 선생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택시운전을 하시는
허세욱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하자 허세욱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
고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하시던 기억이 난다.

<서울평통사 윤영일>

내가 아는 가장 겸손함과 순수한 미소를 가지셨던 사람, 허세욱 선생님.

허세욱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작년 초 평통사 사무실에 처음 갔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
다. 노동분회 모임이 있어 잠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잠시 택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물었는데 “그냥, 그렇지요 뭐” 하시며 조용히 미소지으셨
습니다. 지금 그 분을 떠올리며 생각나는 표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때 보았던 그분의

그 선한 미소입니다.

그 후 마주칠 때마다 그 분은 항상 그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실무자에게조차 단 한번도 하대를 하지 않았던 그 분. 그 겸손함과 그 선한 웃음은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그 분의 분신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도 그 조용하면서도 선한 미소였지요.

그분을 마지막 본 3월 30일 저녁, 시청집회에서 몸에 FTA의 문제점을 적은 대자보를 두르시고 시위를 하시는 것을 보고 “선생님, 항상 보고 배웁니다.”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손사래를 치시며 겸손해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참 하실 말씀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때 들을 수 있던 말씀을 얼마 뒤 피와 절규로 쓰여진 유서로 만났을 때..... 그 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하는데.....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을 그 말씀들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제 다시 선생님의 그 선한 미소는 다시 볼 수 없지만, 제 가슴속에는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제 마음 속 선생님의 미소가 환한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부천평통사 박석진>

지난 2002년 여중생범대위 사무실에 파견되어 일할 때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며 유인물을 찾으시던 모습, 택시노동자로 일하시면서 손님에게 나누어 드리며 설명을 해드린다고 수줍은 미소를 띠우시던 동지.

택시운전으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아무런 행사도 없는데 대추리 마을에 찾아와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걱정하고, 행사 때마다 얼굴을 마주치면 항상 열심히 못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씀하시던 동지. 추운 겨울, 추위를 걱정하며 검은 비닐봉지를 묵묵히 건네던 동지. 그 속에는 너무나 따스한 조끼가 들어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열심히 투쟁하라고 격려하시던 동지.

저는 그 분을 허세욱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동지라 불러주길 원했고 허세욱 동지의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의 동지였습니다.

동지여! 당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집니다.

동지여! 이제는 당신을 내 가슴속에 새깁니다.

동지여! 동지여! 이제는 목놓아 불러봅니다.

부디 험난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고이 가소서.

<미군문제팀 장도정>

고 허세욱 열사 발인식 추도사
-자주와 평화의 불꽃으로 영원하소서!-

동지여!

동지라 불리는 것을 제일 좋아했던 허세욱 동지여!

우리가 십만대군만 되었더라도 당신을 잃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통일단결로 든든히 선 지도력과 흔들림 없는 강고한 투쟁력을 갖추어 노무현 정권을 몰아 부칠 수만 있었다면 당신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을!

당신을 보내는 지금, 우리의 가슴은 통han으로 갈갈이 찢어집니다.

당신은 아는 체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었으며 상대의 나이가 어려도 존대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걱정하며 모금하지 말라던 당신!

그리하여 당신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은 철거반대운동에서 노동조합운동으로, 시민운동과 정당운동으로, 그리고 평화통일운동으로 실천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여중생 투쟁과 평택투쟁에 온 몸을 던졌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중생을 위한 촛불을 들었지요. 황새울 벌판, 철조망 내리는 군용헬기를 향해 깃발 들고 외치며 달려나갔지요.

당신의 분노와 투쟁은 자주와 평화통일을 향한 노동자의 진군이요 민중의 창검입니다.

허세욱 동지여! 당신은 37년 전 전태일 열사의 뒤를 이어 새시대의 요구를 온 몸으로 밝혀준

투쟁하는 우리 민중의 표상입니다.

허세욱 동지여!

당신을 떠나보내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거두고 고개 들어 당신을 바라봅니다.

“망국적 한미 FTA폐기하라!”던 당신의 외침을 이루겠습니다.

“여중생의 한을 풀자!”던 당신의 소망을 기어이 이루겠습니다.

“밤새도록 미군들을 괴롭히겠다”던 당신의 분노, 우리가 대신 풀겠습니다.

허세욱 동지여!

자주와 평화, 민중의 해방을 향한 투쟁의 장정에 우리와 늘 함께 하소서!

통일의 날, 해방의 날에 새 하늘 아래 부활하소서!

허세욱 동지여!

허세욱 동지여!

2007년 4월 1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허세욱 열사의 분신투쟁과 한미 FTA

민주노총 부위원장, 평통사 지도위원 허영구

분신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

민중의 가장 낮은 곳에서 승고하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던 한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는 노동자 허세욱 열사다. 노동자 민중의 삶의 전형을 보여준 허세욱 열사는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민주노총 택시노조 조합원, 민주노동당 당원, 참여연대 회원, 평통사 회원으로 활동한 허세욱 열사는 어느 곳에서도 칭송을 들을 만큼 매우 성실한 노동자였다. 그는 활동에 열성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학습하는 성실한 노동자였고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론가이자 투사였다.

그렇다고 날카롭고 차가운 성격의 운동가가 아니라 지역구에서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품성이 너그러운 동지였다. 갈등과 분열의 운동 풍토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온 몸으로 실천하였다. 가히 운동노선의 갈등조차 변증법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치유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의 변증법적 통합은 이론가들의 방식이 아니라 매우 민중적이었다. 삶을 지탱하는 고단한 몸에서 따뜻한 심성의 가슴으로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차가운 머리로 상승했다가 다시 뜨거운 가슴을 거쳐 온 몸으로 저항한 그 자체가 변증법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전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열사 앞에 부끄러울 뿐이다.

오늘날 수많은 운동의 역사와 이론의 학습에도 감동받지 못하면서 게으른 우리들에게 허세욱 열사는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고 떠났다. 제국주의 철폐, 민족해방, 노동해방 등 모든 투쟁은 결국 인간해방을 위한 일임을 일깨워 주었다. 세상을 바꿔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과 우리 스스로 해방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분리되거나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분신으로 보여주신 허세욱 열사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 제국주의 세계침략에 맞선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투쟁으로 한미FTA 반대 투쟁의 횃불을 치켜드신 열사의 뜻을 받들어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정신을 되살리는 살아남은 자들의 과제다.

한미FTA 폐기투쟁의 과제

한미FTA협상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양국 정부는 4월 2일 협상을 타결했다. 졸속, 밀실, 퍼주기 협상으로 불려온 한미FTA 협상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1만 여 개가 넘는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물론이고 국가의 주권사항인 세제를 비롯하여 비관세장벽까지 모조리 무너뜨렸다. 17개 협상분과가 말해주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전반에 걸쳐 미국경제에 통합되고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 그리고 이에 편승한 국내재벌이 노동을 착취할 수 있도록 자본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었다. 국가기구가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2006년 2월에 시작된 한미FTA협상은 2005년말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한미군사동맹을 뒷받침하는 한미경제동맹으로서 추진되었다. 한미FTA는 전 지구적으로 추진하는 WTO세계화와 함께 양면전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FTA를 통해 한국경제를 미국 경제에 통합시킨 뒤 한반도를 중국을 포위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남북미자유무역협정(FTAA)을 맺으려던 미국의 시도는 도미노처럼 번진 좌파정권의 등장으로 좌절하였고 곧바로 한미FTA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FTA를 강제해 나가려는 전략으로 수정하였다. 이제까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모델로 하였으나 미국의 입장에서 'NAFTA+ 알파'라는 최악의 한미FTA가 체결되면 향후는 전 지구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 역시 이 모델에 입각하여 향후 수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려 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면서 일방적인 선전을 퍼부어댔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왜곡선전하면서도 한미FTA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본부의 선전이나 집회는 철저히 봉쇄하였다. 협상에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억압하였고 구속, 수배하였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통상독재였다. 군사독재보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권력의 독재가 더 기승을 부렸다. 허세욱 열사의 분신은 바로 노무현 정권의 통상독재와 미 제국주의의 통치 대리인인 부시의 한반도 침략과 민중수탈에 대한 항거였다.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FTA는 현재의 한미군사동맹을 한미경제동맹으로 뒷받침하여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한반도를 세계침략과 지배의 전초기지로 삼음으로써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노동자, 농민에 대한 무한수탈의 시작이다.

한미FTA는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미국은 6월 말 양국 정상회담의 체결 전까지 쇠고기, 자동차를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 걸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회의원에게조차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한·EU, 한·중국 등 FTA협상을 대세로 거둬 선전하면서 한미FTA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려 한다.

이제 6월말 체결을 반대하고 한미FTA를 폐기시키는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월을 한미FTA를 폐기하는 선전, 교육, 조직의 달로 정하고 다시 전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6월 노동자, 농민의 총궐기를 성사시켜야 한다. 허세욱 열사 분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우리는 다시 거리에 나서야 한다.

중앙 소식

■대중투쟁으로 발전 가능성 열어낸 07 RSOI /FE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투쟁!

지난 3월 29일(목), 충남 만리포 해안에서는 한미연합상륙훈련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개된 올해 만리포 투쟁에는 평통사, 범민련,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화바람, 사회진보연대, 한총련 및 충남지역의 단체들(대전충남평통사, 통일로가는길, 청주청년회, 대전충남범민련, 민주노동당 태안, 서산, 당진, 홍성위원회, 민주노총 충남서구지구협의회, 전농 충남도연맹 등 30여개 단체 상근자 및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집회는 8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 1시까지, 해안가 집회와 수륙양용장갑차들이 내륙으로 기동하는 길목에서의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준비해온 구호를 외치고 노란깃발을 흔들며 종이비행기를 접어 해안으로 날리는 등 자발적으로 집회를 만들어 나갔다. 인근 상가의 주민들과 공사 중인 인부들도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과 구호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지난 해 만리포 훈련이 평양점령을 위한 모의훈련임을 폭로한 평통사의 선도적인 투쟁에 힘입어 올해 RSOI/FE 저지 투쟁은 제주, 부산, 대구, 왜관, 평택, 파주 등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각계각층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한미연합훈련 저지투쟁의 대중적 전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관련기사 보기] : “한미군사연습 반대운동, 전국 발전가능성 확인” [RSOI좌담회] 통일연대 한현수 정책위원장, 평통사 오혜란 팀장]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conews&action=viewForm&uid=4767&page=1

한편, 유영재, 오혜란, 김판태, 공동길, 박종양 등 중앙실무자 5인은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3인과 함께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해 만리포 투쟁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3월 16일과 4월 2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재판은 서산지검이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평통사는 이를 한미연합훈련의 불법, 위헌성을 밝히는 계기로 삼고 “대북선제공격훈련이 적법한 공무인가?”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재판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 “한국에서만 대규모 연합연습 가능”, 이철기 교수 증언 : 평통사 활동소식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1512&page=1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추적 목인한 김장수, 송민순 장관 등 검찰에 고발!

4월 20일,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불법추적과 돈놀이, 탈세를 방조한 김장수 국방부 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위 피고발인들은 2006년 12월 8일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2007~2008년 적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측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위법적으로 축적해온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거짓 주장을 수용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하였다.

평통사는 이들을 직무유기, 주한미군의 부당 이자취득과 탈세를 방조한 죄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 사실을 숨긴 채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를 허위로 작성, 국회의 결산 심의 및 의결을 받았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죄 혐의를 추가하였다.

[고발장 보기]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3&action=viewForm&uid=737&page=1

또한 평통사는 4월 25일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축적에 따른 이자수입 1천억원에 대한 소득세 포탈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을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센타에 신고했다.

■대추리에서, 주민들과의 마지막 놀이

평통사 회원들은 지난 3월 18일,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대추분교 운동장에서 연날리기, 널뛰기 등을 하며 놀았다. 이 날 놀이는 주민들이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마을을 떠나기 전, 대추리에서의 평통사 회원들과의 마지막 놀이었다.

2003년 5월부터 힘닿는 대로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평통사 회원들은 주민들과 어울리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달랬다. 이 날 저녁, 회원들은 촛불행사를 마친 후 그 동안 마을에서 생활해온 평통사 지킴이들과 모임을 갖고 이들의 수고를 위로했다.

주민들의 대추리에서의 촛불행사는 3월 24일, 935번째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주민들은 현재 40여 가구가 송화리로 이전하여 집단이주단지가 마련될 때까지 지내고 있다.

■평화통일연구소장 강정구 교수 재판부 기피신청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강정구 교수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본 항소심 재판은 2006년 8월 24일에 시작하여 2006년 12월 14일 구형공판을 진행하였고, 2007년 1월 25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날 갑자기 재판부로부터 선고공판 취소와 항소심 심리재개 통보가 왔고, 원래 합의 재판부 중 현재의 부장판사만 남고 다른 판사는 모두 교체되었다. 교체된 판사들의 발령일은 2월 21일이고, 부임은 22일로 심리재개일인 27일과는 불과 5일의 여유밖에 없었다.

이에 강정구 교수와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문제들에 대한 검찰석명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요구하는 일정상으로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중심주의에

맞는 재판진행이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는데도, 본 재판부는 제대로 된 석명을 외면해왔고, 이번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극적이었다.

게다가 지난 4월 19일 열린 항소심 심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석명 요구를 묵살하고 구형공판 일정을 공지함으로써 무리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난을 샀다. 그런데 이 날 재판부는 무리한 재판진행에 항의한 86세의 황두완 선생에게 열흘이나 감치결정을 내리는 비인도적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그 동안 무리하게 진행되어온 재판일정과 내용상의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강정구 교수는 이 같은 재판부에게 더 이상 공판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강순정 선생, 옥중편지 보내와

(이 편지는 강순정 고문이 홍근수 상임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평통사 공동대표이신 목사님과 평택 양키군 기지 이전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문정현 신부 그리고 문규현 신부 진관스님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 가는 장한 통일꾼 청년 동지들을 이 곳 구치소에 갇히어 볼 수 없고 소리 들을 수 없는 그리운 내 사랑하는 통일꾼들이 이 사람 80노인을 염려하며 석방투쟁을 하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고투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분에 넘치는 동지적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씩씩한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 보면서 내가 걸어온 80년의 세월들을 더듬어 보면서 존경하는 우리 평통사 공동대표이시며 신학자이신 홍근수 목사님 편으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난 병술년 11월 28일 12시 45분 경 거창한 장정들에 의해 끌려간 곳이 서울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이었으며 나를 가두고 심문하는 곳이 206호 심문실로 기억됩니다. 그들과의 실갱이 귀가 안 들려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들리지 않아 목이처지는 소리를 5명이 번갈아 가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잡듯 걸어모아서 16,000페이지라고 하면서 잡들이를 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공안 바람을 그대로 변치 않고 있는 오늘의 남쪽땅 현실. 기가 난 그들은 15일간을 내 앞에 대며 조여오는 그들.

0.75평 철창의 문소리 요란하게 소리소리내며 철석철석 철퇴로 때린 것 같이 찌지는 요란한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며 민족의 평화 민족의 단결 민족의 통일 성업의 만세소리가 철창소리 대신 만세소리로 변할 때 문이 저절로 열려 옥과 옥외 남과 북 해외 7천만겨레의 함성이 강산을 울리는 소리로 변하기를 목마르게 바라며 내일의 조국 영광을 꿈꾸며 나의 심판에 대처하는 마음을 다지며 여러 동지들과 만나는 날을 재촉하고자 합니다.

병자가 약을 먹으며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나듯 우리 평통사 대표님들 홍근수 목사님 문정현 신부님 문규현 신부님 진관 스님 그리고 고문단 지도위원 강정구 학자님 등 약을 나르는 젊은 동지들 약을 마시는 우리조국 땅 산천.

약의 효력은 바위돌같이 굳은 바위 엄동설한 풍 얼음짱 풀러가는 남북의 길트임이 말해주는 것이라 믿으며 기차길이 트여 금강산도 가고 만물산 구룡포의 물떨어지는 소리 바로 반동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같이 역사의 매질이 시대를 변하게 하여 옛터전 평양성의 1300년 역사의 매질이 시대를 변하게 하여 온 세계는 놀란 눈으로 다가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오.

공안 바람이 잘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그 증거가 지난 1월 23일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311호 법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32년만에 무죄로 판결이 나는 것이 바로 역사이며 검찰들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들의 반역자들이 궁극하는 모습이 우리 민족의 앞날의 길을 트이게 하는 징조이며 바로 앞에서 말하는 약의 효력이라고 믿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참으로 감사함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며 통일꾼 평통사 동지들의 씩씩한 10년여의 발자취가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약 나르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나는 하늘에 대고 저 평양거리 동포들에 대고 해외동포들에 대고 이 철창 속에서 자랑하는 소리를 바람따라 구름따라 보내고자 합니다.”

2007년 3월 18일

강순정 배

통일인사 강순정 선생은 지난 해 11월 구속되어 지난 1월에 검찰에 의해 간첩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순정 선생은 고향이 함경남도 안변인 이산가족으로, 오로지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남쪽의 소식을 캐나다에 있는 지인을 통해 북으로 보냈을 뿐입니다. 강선생이 보낸 남쪽 소식은 2002년 여중생사건 사진, 평통사가 발표한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 등입니다. 이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로, 검찰이 이를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강순정 선생은 77세의 고령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심하게 농이 나오며, 치아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팔손이 다된 수구초심의 노인에게 간첩혐의를 들춰 재판과 사법부의 처사는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입니다.

평통사는 매 주 한 번씩 선생님을 면회하며 지난 4월 23일에는 김종일 사무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서는 등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평화통일연구소_한반도 평화협정 토론회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2007년 5월 9일(수) 오후 2시~6시

한국기독교교회관(구관) 2층

- 축사 : 신언상 (통일부 차관)
- 발제 : 이삼성 (한림대 교수)
- 토론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태욱 (아주대 교수)
- 사회 :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2.13 합의이후 한반도 정세가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평화협정의 내용,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장래문제 등에 대해서 시민사회 진영의 입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의 : 02-711-7292, 담당 : 이경아부장 011-9654-0747)

서울평통사 소식

-분회활동-

■여성분회 ‘노뚝돌’

4월엔 허세욱 동지의 분신 이후 촛불행사로 모임을 대신하느라 여성분회 정기모임을 못했습니다. 허세욱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김은아 회원의 어머님께서 병세가 악화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해 집에 계신답니다. 여성분회는 요즈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천지역에서 <2007 금천 어린이큰잔치>행사를 하게 되어 금천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행사준비위로 참가합니다.

행사는 5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금천 체육공원에서 ‘친구야, 노~올자!’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며 여성분회는 이날 무기장난감 바꾸기와 평화버튼 만들기 마당을 맡습니다.

■노동분회

새해 들어 벌써 다섯번째가 됐네요. 지난번 모임은 테마사랑방으로 대체하고 한달만에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모임은 영화분회와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칸노치 감독의 ‘빵과 장미’란 영화였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해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동식, 문희, 현규였습니다. (현규는 뒤풀이때 참여했습니다) 요즘 들어 모임에 계속 3명정도밖에 참여를 못하는데요. 앞으로 노동분회답게 일도 열심히, 투쟁도 열심히 하는 노동자의 모임이 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기행분회 ‘길섹’

4월 13일 (금) 오후 2시, 서울평통사 사무실에서 길섹모임이 있었습니다. 운영일 회원은 평택 관련 일 때문에, 위선남 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윤영 회원은 명지를 업고 나타났네요, 그리고 박종양, 황윤미, 오미정, 장윤지 이렇게 모처럼 5명이 모여 먼저 서로 그동안의 생활보고를 시작으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각자 생활을 얘기했는데요, 이는 자칫 형식화되어 버릴 수 있는 모임에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시간으로 작용했으면 해요.

다음으로 고 허세욱 선생님과 대한 병상 경과보고와 이후 관련 일정에 대해 분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고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4월 27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영화분회

지난 3월 27일, 오랜만에 영화모임을 하였습니다. 이 날은 노동분회와 함께 '빵과 장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도 보고 노동분회 성원들과 오랜만에 뒤편이도 거하게 했습니다. 분회원들이 떠나는 아쉬운 소식을 전합니다.

4월 19일 방영미 분회원이 3년 일정으로 태국에 있는 푸켓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가이드'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씩씩하게 생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길 소망해봅니다. 또한 본부에서 활동했던 정동석 분회원이 전북으로 내려가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영화모임결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푼 희망을 갖고 시작한 영화모임이 휘청(?)거리고 있네요. 여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힘차게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서울평통사 역점 대중사업-

서울시민 우롱하는 용산기지 반환!

그 현장을 간다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된다지만 심각한 오염과 기형적인 공원조성 등 그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에 서울평통사는 용산기지 반환의 여러 문제점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를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우선 용산기지를 둘러보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대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희망' 청소년들과 첫 번째 용산기지 탐방사업을 벌인 서울평통사는 오는 5월 13일 향린교회 교인들과 두 번째 탐방을 한다. 매월 진행할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는 서울평통사의 '용산기지 둘러보기!'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용산기지 반환과정, 너무 화난다.

용산기지는 125년간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다. 구한말에는 청나라 땅이었고 일제시기에는 일본 땅이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미국 땅이다. 서울 수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오욕의 땅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게 된다. 하지만 그 반환이 훼손된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진 않는다.

2004년 12월 한미양국은 '용산기지이전협정'을 통해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정부는 한국민 혈세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평택주민들을 내쫓아 그 자리를 내어주는 대신 용산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용산기지가 다 반환되는 것도 아니다. 150명의 미군을 잔류시키기 위해 드레곤힐 호텔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미군의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해 헬기장 부지를 확장해서 남겨두어야 한다. 또 미대사관부지도 제공해야 한다.

얼마 전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본체기지 81만평은 전면공원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81만평 중 6만 6천평, 즉 여의도 공원 부지와 맞먹는 규모를 미국에게 주기로 약속해 놓고

말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도 정도 나름이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때 미군 접하기가 이태원에서 미군 보듯 하고, 나무 위로는 수시로 헬기가 떠다니고, 헬기 소음으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되지 않는 이런 공원을 진정 공원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가서도 전면공원화 했다고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을지.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태도에 이젠 신물이 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화가 난다. 미군 150명을 위해 용산의 정 가운데 부지를 꼭 제공해야 하는가. 미 대사관 부지는 왜 그렇게 많이 제공하는가. 7천 8백평을 반환받으면서 왜 그 3배나 되는 2만 4천평의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헬기장부지는 7천평에서 1만평을 늘려 1만 7천평을 제공한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미국사랑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 군기지 있는 공원 들어봤는가? 헬기장 있는 공원은? 용산공원을 미군을 위한 정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공원 조성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부가 요구하는 부지 또한 만만치 않다.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듯하다. 그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전쟁기념관을 확장하는데 국방부는 1만 3천평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또 가운데 썰렁하게 있을 잔류 미군을 위해 혹여 통행에 불편이 있을까 걱정스러워 길 터주는데 2만 4천평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여기에 2만평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한다. 합이 5만 7천평이다. 이 또한 여의도 공원부지와 맞먹는 규모이다. 여기저기 군 관련 부지로가 잔류한다면 그것을 공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민족 역사공원, 정말 볼 만할 것이다.

■용산기지는 거대한 유전지대다.

용산기지 내 기름오염은 주한미군이 밝힌 곳만 해도 8곳이며 그 외 녹사평을 포함해 5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자신들 스스로 기지 내 오염이 8곳이라고 밝혔다면 실제 오염상황은 얼마나 심각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다.

용산기지 주변에서 기름유출을 확인해도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2001년 녹사평역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서울시는 오염원이 용산기지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주한미군 측이 오염원 정화작업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나서 그 오염원이 정말로 정화되었는지 한국정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단지 순진하게 미군측이 정화작업 했다고 하는 일방적 통보를 믿는 수밖에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녹사평역 부근에서는 기름이 계속 유출되고 있고 그 중 발암물질인 벤젠의 오염도가 기준치의 2천배를 넘는 곳도 있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기지 87만평 중 2만 4천평이 오염되었을 경우 그 치유비용은 93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 120년이 넘게 군기지로 있던 땅이 단 2.8%만 오염됐을 것이라고 보는가.

오염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한 문제는 그 오염 정화비용을 누가 대는가이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측이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일이건만 이번 반환기지 환경오염 협상 결과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작은 모습만 보이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 다름아니었다. 지난 해 7월 정부는 반환기지 15곳에 대해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탄피제거나 기름통 제거정도로만 오염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미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합의를 해준 것도 모자라 이번엔 미 측이 이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유절차를 마쳤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또다시 그 반환문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환경부는 14곳 반환기지 치유조치가 미흡함을 확인했지만 또, 또, 또, ‘한미동맹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반환절차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로써 오염치유에 대한 환경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미군기지 14곳이 4월 13일 공식 반환됐다. 이번의 반환절차는 용산기지를 포함한 이후 반환될 40여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임에도 그 이전비용 뿐 아니라 오염기지 정화비용도 한국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한미동맹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동맹이란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관계’라고 한다. 이번 미군기지 반환과정을 보면 우리국민이 무슨 이익을 보았는지 찾을 수가 없다. 협상 당사자들은 찾았을까? 너무 궁금하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 활동보고-

(2006년 5월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회원의 1월부터 4월까지의 의정보고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서울디자인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으로 2004년 청계천에서 쫓겨난 노점상들이 또다시 생존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동대문풍물시장 노점상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강북구 미아동의 철거지역으로 2007 겨울빈민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 1000세대 중에 25세대가 남아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강북지역은 뉴타운 선정 후 일대가 개발투기 붐이 불어서 평당 분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미아타운의 경우 고급주거단지를 표방하고 있거나 강남과 같은 중대형 평형의 비율을 늘리고 있어 강북 및 미아지역의 주민들은 분양권을 받더라도 일반 서민들 입주하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망을 느꼈을 미아동 주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12월, 교통요금 운임인상 의견 청취안에 대해 본회의 장에서 반대토론을 하여 서울시의원들로 하여금 부동의(부결)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요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해 기고, 토론평개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1일, 비록 교통요금은 인상되었지만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정치가 무엇인지, 이후 투쟁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많이 배우는 계기였습니다.

■2013년까지 서울시의 저상버스를 50%로 도입· 유지하고 장애인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도시철도요금의 2배 이상을 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시정추진단’- 무능공무원 3%퇴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본회의 5분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명분 없는 느낌 퇴출,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는 전형적인 일방

행정임을 지적하고 기대와 찬사와 믿음을 주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회를 주어 공무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지난해 구성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와 생태공원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용산문제를 대중화하는 투쟁을 찬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오염의 심각성, 누더기 공원으로 전락하게 될 반환 용산미군기지 문제를 기지주변 답사를 진행하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용산지킴이 서울시의원 모임’을 꾸려 원내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정부와 서울시의 81만평 공원화 주장은 거짓”이라는 글을 기고하였고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라디오 인터뷰, MBC뉴스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부천평통사 소식

■ 천연비누 써보셨나요?- 비누재정사업

부천평통사에서는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천연비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천연비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회원의 아이 중에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안쓰러워 다른 회원 중 한명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 천연비누를 발견한거지요!

파프리카 비누를 사용하면 아토피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비누베이스와 비누틀을 준비해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선물해줬답니다. 뿐 만 아니라 다른 몇몇 회원들에게도 써보라고 건네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정사업의 시작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답니다.

비누를 받은 회원 중 한명이 “나는 이 비누를 한번도 못 써봤어. 집에 가져갔더니 엄니가 감춰 놓고 쓰시는 거야..ㅠ.ㅠ” 이 말이 본격적인 재정사업으로 발전시킨 발단이 되었답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비누를 써본 주위 분들의 평이 너무 좋아 심심치 않게 비누를 찾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기(명절)가 되면, 부천평통사 사무실은 비누제작 공장이 되고, 회원들은 비누를 만들고 포장하는 무보수 노동자가 되었답니다^^*

천연비누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천평통사로 연락하세요...

■ 2007년 새내기회원 환영회 및 소양교육

지난 3월 24일과 4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2007년도 1차 새내기회원 환영회와 소양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분회가 준비하여 진행한 환영회에서는 새내기회원들의 자기소개, 함께하는 게임, 그리고 조출한 음식나누기 등으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는 김종일 사무처장을 모시고 ‘평화,통일운동과 평통사’라는 주제로 소양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김처장은 80년대 말 ‘반핵평화운동연합’을 시작으로 전개된 한국에서의 평화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통사는 그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발전시켜 지금은 한국을 대표

하는 평화, 통일운동단체가 되었다며 새내기회원도 평통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새내기회원들의 한마디, 그리고 현회원(?)들의 댓글

신입회원 환영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선배님들께서 우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마음들이 가슴깊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새내기여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낯선 세계로 향한다는 것이 불안하지만 형 누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행복합니다...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꿈과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만이 존재하는 그 속에 저도 서 있는것 같아 행복하네요^^ (희준)

쩍 우리의 햇병아리 신입회원, 개미허리 희준!! 그대의 유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오. 그 열정으로 평통사 활동과 분회모임과 뒤풀이와 놀러가기(응?) 아주 열심히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오. 부천 평통사가 그대의 몸과 마음을 살찌워 드리리다. (경순)

분회활동을 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신입회원이 아닌 현회원(?)이긴 하지만, 신입회원환영회를 하고 보니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부천평통사 하면 김정훈이 떠올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쩍 정훈이랑 분회모임을 한지 벌써 1년이 넘었구나. 항상 묵묵하게 옆에 있어준 정훈이가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해 보였어..요즘 생각이 많지? 사람은 아픔만큼 성숙하다고들 그러지... 정훈이는 반드시 꼭 이겨낼거라 믿는다...너의 빈자리는 항상 형이 지키고 있을께..따뜻이 데워놓고 있을께..하루빨리 분회원들과 소주한잔 하자!!! 정훈이 파이팅!!!(성근)

나이들어 새로운 모임에 들어간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입회원환영회 분위기는 저의 이런 부담을 깨끗히 털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상큼한(?) “평화분회” 형님들이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지금, 평통사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정엽)

쩍 나이를 먹어가면서 항상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되새기는 날들이 많아져요. 그만큼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을 그때의 마음 그리고 평통사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옮겼을 때의 마음...항상 기억하시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함께 어깨걸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종욱)

평통사를 처음 접한 기회는 땅굴이랑 유적지 탐사를 갔을 때입니다. 처음인데도 낯설지 않고 가족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통사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평통사 동지들과 아직 많은 것들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평화카페에 참석하고, 신입회원 환영회에 참석하면서 어느사이 제가 평통사의 일원이 되어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해주시는 평통사의 기동 주대표님, 시집을 갈 나이인데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사무장님...이 외에 많은 동지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주는, 부천평통사는 제게 있어 가족입니다. 신입회원 환영식때 저에게 준 카드에 있는 내용들 전부 회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이라 생각 하니 맘이 찡하더군요.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과 인간의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시간이 되는 한 저 또한 평통사에 많은 행사들을 참석할 것이며, 더 많은 동지들이 같이 했음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평통사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쩍 영화모임 회원이면서 따~악 한번만 출현 하신 오라버니...앞으로의 모임에서는 조금이나마 얼굴을 좀더 자주 볼수 있었음 좋겠어요~(미영)

부천평통사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가장 처음 접하는 자리는 새내기 교양자리였습니다. 약간의 설레임과 기대로 평통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새내기 교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새내기 교양의 주제는 평통사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인가였어요. 교양을 통하여 새내기로서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통사의 이름, 목표에 맞는 활동들을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교양의 주제를 미리알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해보고 참여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네요^^ (승우)

쩍 여린 듯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표현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 승우야. 너는 일 욕심이라고 얘기했지만,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표현이 더 나올 것 같다. 그런 네가 평통사를 통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운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매우 기뻐다. 아니 그 동안 운동을 중단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왔을 네가, 실천을 통해 운동의 폭을 좀 더 확장하고자 내린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평소 고민을 더욱 치열하게 나누지 못하고, 바쁜 일상 속에 매몰되어 왔던 우리를 반성하고, 이제 평통사를 통해 솔직하게 나누고 우리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자. 너의 왕성한 활동력과 지칠 줄 모르는 의욕이 평통사에서도 빛을 발하리라 믿는다. 진정어린 애정으로 평통사 가입을 축하해~(해영)

현주에게..

신입회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친한 오빠의 상큼한 동생, 이런 느낌이 강했지?^^

이젠 마냥 동생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라는 넉넉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동지로 너와 더욱 깊이 만나고 싶구나. 이걸 크나큰 인연임은 확실한 것 같다.

같이 잘 살아보자!" (보영)

(새내기회원이자 부천평통사에서 제일 예쁜 막내인 현주는 시험기간인 관계로 소감을 전달받지 못했네요. 현주야! 시험 잘보고 조만간 다시 한번 꼭 만나자!)

-분회활동-

■나 자신과 우리와 이 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평화분회

통일사랑노동자회(부천평통사의 전신)에서 평통사로 전환이 되면서 통일과 관련된 모임은 많은데 평화와 관련된 모임이 없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의 문제와 평화군축의 문제를 깊이 연관시켜 더 이상의 군비확장이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등을 배제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분회를 당시 다섯 분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남자회원 네 분과 여자회원 한 분이 함께 산뜻한 평화분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평화분회는 타 분회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은 분회입니다.^* 학습과 생활나눔과 뒤풀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한,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이 없이 있

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담백함이 좋은 그런 모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걸어걸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기행분회 더함

“겨울 들판을 헤매는 자가 가장 먼저 봄을 본다.” 여행분회 <더함>은 한반도에 깊이 파고 들어있는 전쟁의 흔적과 분단의 역사를 배우고 느끼기 위해 만들어진 분회입니다.

소탈한 모습에 산골 총각 같은 수수한 마음을 지닌 김정훈 회원, 바쁜 부천평통사 상근 일정에도 <더함>의 방향을 올곧게 제시해주는 박숙경 회원, 과거 날씬하고 잘 생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다이어트 압력에 시달리는 김성근 회원, 사이다라는 별명을 제일 싫어하는 노철성 회원, 연애와 투쟁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연애의 모범 전문미 회원, 그리고 어리버리 분회장 저, 장해영까지 6명의 분회원이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행모임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여행분회를 고민하는 만큼 보다 ‘한국적인’ 테마를 가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통일 여행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 2월 24일에 첫모임을 시작한 새내기 분회지만 긴 호흡, 강한 걸음으로 평화와 통일의 싹이 돋고 있는 한반도 곳곳을 다니며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실천하겠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실험하고, 투쟁하라!” - guattari & negri -

■평화와 통일의 아름다운 울림 노래분회 이어울림

노래분회는 문예활동이 대중에게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민중가요를 배우고 노래의 뜻을 익히며, 그 노래를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주로 하여 평통사를 알리고 평화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통사의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황영희 회원, 중학교 선생님이시며 두 딸의 어머니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화음을 참 잘하시고 목소리도 고와서 노래에 향기를 불어넣어주시죠. 또 회원 개개인의 장점을 때에 맞게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저희의 정신적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재명 회원은 거주지가 수원인데도 평일 모임을 위해 항상 먼저 오셔서 연습을 하시는 저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굶은일 마다하지 않는, 배울게 많은 선배님이시죠. 이분도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다음으론 이보영 회원, 무척 오랫동안 평통사 활동을 하며 분회장을 최근까지 맡아온 부천평통사 문예의 산 증인입니다. 요즘 2세를 맞을 준비에 몸이 무거울텐데도 직장일, 학습모임, 분회모임 모두 빠지지 않는 분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지요. 네 번째 회원은 임채경, 직장인 서울에서 모임은 부천으로, 무거운 베이스기타를 메고 올 때면 짠하기만 한 우리 분회의 막내입니다. 음악에 대한 감각과 타고난 끼로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천재 음악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분회장을 맡아서, 분회원들의 삶과 투쟁을 배우고 평통사의 활동에 문예의 옷을 입히려 노력하며 한창 열심히 일하는 이숙주 회원.

이어울림은 대중과 평통사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평통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같이하는 분회가 되도록 열심히 할 것입니다. 삶에서 투쟁하고 투쟁에서 삶을 배우는 분회, “이어울림”을 기억해 주세요~~ =^.^=

■사실보다 더 사실같은 영화 -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삶 영화분회

총회 끝나고 이런저런 일정과 개인 일들 때문에 모임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어요. 영화분회는 2주에 한 번 + 오프모임 한 번 그래서 한달에 3번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5월 첫 주는 사무실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라는 영화를 보고, 두 번째 주말에는 오프 모임으로 [극*도 살인**]을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

이렇게 영화분회는 다소 널널(?)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만 부천 평통사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분회(저를 빼면)로서 아주 생기 있고 활기찬 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젊은 만큼 활동력도 대단하구요. ^^

그런 저희 분회의 분회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청소년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평통사 홍보도 열심히 하고 여러 행사들에 빠지지 않는 정 많은 영이는 빼어난 솜씨로 만든 핸드폰 장식고리를 분회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정작 자신의 핸드폰은 빈곤하게 해서 다니는 알뜰한 살림꾼이고, 매일 서서 일하느라 몸이 많이 고단한 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실천하고 노력하는, 뒤풀이 자리에서 술잔이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옥이는 사실 알고 보면 술을 못마시는 게 아니라는...#\$\$& 본업(?)이 바쁜 고로 거의 참석을 못하지만 첫 청일점으로 들어 온, 큰 목소리와 특별한 말발로 분위기를 제압하는 상호, 평통사와의 인연은 햇수로 3년 정도 되었지만 어제서야 첫 모임을 같이하게 된 뽀뽀마른 감동이 준이, 그리고 호호 아줌마 사무장님과 종이 호랭이 왕언니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치들의 몸부림이 시작되다 몸짓모임

평화카페 때 카톨릭대 몸짓패 '무천'의 공연을 보고 백이 간 영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몸짓 배우요' 이 말 한마디에 시작된 몸짓모임.... 먼저 '무천' 학생들에게 우리의 사부가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도 '오케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시작 된 몸짓 모임은 매주 금요일 9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처음 '바위처럼'을 배울 때 사부가 4명이나 와서 영일리와 현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2:1 강습... 빨리 분회원을 늘려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갖은 우리에게 호박이 녀쿨째 굴러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제와 진제의 부인 혜숙이가 몸짓을 배우고 싶다는 소식 이었습니다. 드디어 1:1 강습을 실현한 우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누가 말했던가? ^^

몸짓을 배우기에는 좀 늙은(?) 나이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몸짓 사람들,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 연습량이 적어 그런지 영 실력이 늘지 않는 몸짓 사람들, 하지만 열정 하나만은 대단한 몸짓 사람들은 어느 날 평통사 집회에서 멋진 문선을 선보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 날이 오기는 하겠지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우리 사부님들은 집이 서울, 용인이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습을 해주는 무천의 석환이, 진우, 혜지, 윤형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몸짓을 배우고자 달려오는 영일, 혜숙, 진제도 파이팅!!

■조국의 미래에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성분회(준)

2006년 8월 중순 4명(혜련,현순,명은,숙경)의 여성들이 여성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어요. 처음 인원은 4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예비회원인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6명이 첫 만남을 가졌으며 두달여 후에는 1명(은현)의 여성이 함께하기로 의기투합을 하였고 인원은 총9명(아이가 두명 더해져서)으로 분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네요 ㅎㅎㅎ. 2주에 한 번 낫시

간에 모여 아이들을 챙기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영 정신이 없는 가운데 식사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평통사 여성분회의 사례를 들어보기도 하고 여성분회구성원들의 가족신년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여러방향에서 여성분회의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기위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덧 여성분회(준)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해요.

며칠전에는 고 허세옥 민족민주노동열사 장례식에 다녀와서 사무국장으로부터 FTA교육을 받는 등 정세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공동육아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볼 예정이랍니다.

아직까지는 여성분회 특성에 맞는 고유의 색깔을 제대로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나름대로의 요구는 늘어가고 있어요.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을 넘어 나자신을 찾고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하며 조국의 미래, 민족의 미래에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본답니다. 엄마가 나서면 무서울 게 없다는 것 다들 아시죠^^

부천평통사의 여성분회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날을 모두 기대해주세요 ^.^

부천평통사 5월 행사

5/ 7(월) 6차 운영위

5/11(금) ‘한미FTA 원천무효화 투쟁의 정당성’ 강연회

5/26(토) ‘평택투쟁관련 소송비용(재판벌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5/28(월) 7차 운영위

인천평통사 소식

-신입회원 환영식-

‘반갑다! 평통사!’

인천평통사에서는 2007년 새봄을 맞이하여 작년부터 평통사에 새로이 발을 들여놓은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듬하여 ‘반갑다! 평통사!’. 신입회원들과 기존회원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평통사의 활동목적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4월 29일 일요일, 화창한 봄날씨에 기분좋은 표정으로 여러 회원들이 인천평통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문한나 회원과 김보희 회원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와서 뒷풀이 음식 준비에 함께 해주었다. 구수한 김치찌개와 부침개 냄새가 사무실 곳곳에 진동한다. 그리고 이어서 염성태 대표님과 한연숙 운영위원이 먼저 와서 신입회원들을 기다렸다. 원래 행사는 4시가 모임시간이었으나, 몇몇 회원들이 조금 늦게 되어 4시 30분까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였다.

첫 순서는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기소개’ 시간. 유정섭 사무국장이 먼저 자신의 ‘내시’라는 별명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리고 이어서 한연숙(옹부인), 문한나(문뻗뻗리), 정유성(헬멧), 오수정(수쟁) 회원 등이 자신의 이름과 별명에 담긴 사연과

가입동기를 얘기하며 자기소개를 해주었다. 뒤늦게 도착한 박승문(얼음왕자), 권태형(태팔이) 회원도 순서에 따라 자기소개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염성태 대표님께서 자기소개와 더불어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씀을 해주셨다. “평화통일을 열어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 신입회원들도 함께 열심히 앞장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약 40분 가량 회원들의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웠던 자기소개 시간을 끝마치고 두 번째 순서로 평통사 본부의 박석분 교육팀장의 ‘평통사 소개’ 시간을 가졌다.

박석분팀장은 맨 먼저,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말문을 열어나갔다. 일제시대부터 외세 침략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미국의 간섭을 받아오며 분단으로 이어져온 가슴 아픈 역사를 돌이켜보게 해주었다. 군사작전권도 빼앗기고 FTA에 의해 경제주권마저 넘겨주게 된 현재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평통사가 무엇을 위해 활동하려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자주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분단을 걷어내고 따뜻한 통일세상을 이루는 것. 통일을 방해하는 종속적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하게 만드는 것. 박석분 팀장은 회원들의 물질적·정신적 활동의 총체적 에너지가 모여서 평통사를 이루는 것이기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약 1시간 가량, 박석분 팀장의 강력한 ‘평통사 소개’를 잘 귀담아 듣고 난후 뒷풀이 시간을 가졌다. 상근자들과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오래만에 사무실 안은 함박웃음으로 가득했다. 특히, 김의숙 회원이 만들어준 잡채무침은 뒷풀이에서 가장 큰 인기를 차지하였다.

염성태 대표님의 건배사가 나오고, 술잔이 몇 순배 돌고나서 본격적인 뒷풀이 게임도 진행하였다. ‘추억의 3,6,9게임’ 여러 사람들이 긴장하며 놀이했던 게임에서 회원들의 별칙 수행을 보며 흥겹고 재미난 자리가 계속되었다. 전체 행사는 저녁 8시쯤 막을 내리고, 몇몇 회원들은 남아있는 안주를 사수하고 계속해서 뒷풀이를 진행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뒷풀이 자리에서 권태형 회원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이름만 올려놓고 후원금만 내는 경우가 많은데, 평통사 활동을 보면 무엇이든 여건을 마련해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평통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회원 5명, 기존회원 12명 참여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또한 서울평통사에서 이호민 회원이 참여하여 분위기를 더욱 북돋았다.

-4월의 행사-

■56주기 제8회 강화 민간인학살 희생자 위령제

4월14일(토) 56주기 제8회 강화 민간인학살 희생자 위령제가 갑곶나루터 학살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강화구대교 앞에서 열렸다. 이날 위령제에는 강화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분들을 비롯하여 고양금정굴 유족회, 문경유족회, 인천, 강화지역 단체, 각계인사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위령제는 6.25 전쟁 당시 희생당한 영령들을 생각하는 박종렬목사님의 추모기도로 시작되었다. 이날 추모사를 해주신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는 자신의 고향 김포에서 겪었던 한국전쟁 당시 피해와 분단의 아픔에 대한 얘기와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학살된 희생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며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또한 그동안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원웅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추모시를 낭독하신 이경림시인도 고향인 문경에서 가족분이 학살당한 아픔을 가진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현재 강화 민간인학살 사건은 진실화해과정위원회에서 조사결정이 내려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은 평화라는 두 글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으며, 전쟁은 몇 개월 또는 몇 년으로 끝나지만 전쟁의 상처는 50여년의 세월을 넘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죽은 영혼들은 말하고 있었다.

■ 회원산행 ‘북악산 성곽’

그동안 몇차례 시도하던 회원산행을 드디어 다녀왔다. 정성준 회원을 준비주체로 한연숙 회원과 아들, 오상훈회원 가족들, 김판태 회원과 부인 최소영님, 신정순 후원회원, 한연숙회원 직장동료, 김강연 회원, 대전충남평통사 유한경사무국장, 서울평통사 이호민회원 등 14명이 오붓하게 다녀왔다.

원래는 인왕산을 갈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방된 청와대 뒤 북악산으로 코스를 바꾸었다. 4월 22일(일) 오전 10시 경복궁역에서 만나 마을버스를 타고 자하문입구에서 내려 창의문 출입구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방문증을 받아 11시부터 등산을 했다. 오랜만에 가보는 산인지라 모두들 약간은 힘들어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뒤로는 인왕산과 북악산이 눈앞에 짝 펼쳐지는 풍경에 가슴이 탁 트이는 탄성과 함께 목은 피로감은 짝 가셨다. 또 하나의 기쁨은 멋진 풍경을 보면서 먹는 맛있는 간식~ 신정순 후원회원님이 싸온 향긋한 커피, 유한경 국장이 싸온 대추리 썩으로 만든 부침개.. 꿀맛이었다. 삼청공원 입구로 내려와 시원한 막걸리 한잔과 고소한 손두부로 뒤풀이를 하였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등산모임 대장이신 정성준 회원은 “예전에 100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산악회 회장을 하기도 했었다.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주변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산에 오고 가면 자연히 평통사의 주변도 넓어질 것이다.”며 인천뿐 아니라 서울, 부천평통사 회원들도 함께 하여 다시 한번 산악회를 부활 시켜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산행에 함께 하신 분들부터 시작하여 매달 산행을 하기로 하였다.

일요일날 아침 늘어지게 자고 싶겠지만...

이부자리 박차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오세요. 맑은 공기도 마시고 산에 올라 탁 트인 풍경도 보면서 쌓였던 몸과 마음의 피로를 날려 보내고 자신을 재충전 해 보세요.

■ 4월 활동일지

- 4/1 허세욱 동지 쾌유와 한미FTA 체결반대 촛불 집회
- 4/2 허세욱동지 쾌유와 한미FTA 타결 무효! 촛불문화제
- 4/4 허세욱회원 쾌유를 위한 평통사 촛불문화제
- 4/6 강순정 고문 서울구치소 면회
- 4/7 한미FTA 무효 범국민대회
- 4/10 미대사관 반미연대 집회
- 4/11 콜트악기 정리해고 철폐 투쟁 지지방문(노동분회)
- 4/11 허세욱 회원 쾌유기원 평통사 촛불문화제

- 4/12 인천평통사 5기 제4차 운영위원회
- 4/14 56주기 제8회 강화 민간인학살 희생자 위령제
- 4/15 허세옥회원 운명, 고 허세옥동지 촛불추모제
- 4/16 고 허세옥동지 촛불추모제
- 4/17 고 허세옥동지 촛불추모제, 광화문
- 4/18 한미FTA무효 민족민주노동열사 고 허세옥동지 장례식(염성태,오혜란대표,유정섭사무국장,김강연부장,김원식,김병철,심자섭,오상훈,김주숙,이종일,박순길,김종오,조승현,최현호,한종현,신필녀,김의균,정성준,김판태,정동석,박유순,윤화심,진재환,한연숙,김의숙회원 25명 참가)
- 4/21 고 허세옥동지 삼우제, 평택 대추리
- 4/22 회원산행-북악산 성곽 등반
- 4/23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인천지역 대표자회의
- 4/24 67차 평화군축 월례집회
- 4/24 콜트악기, 대우자판 노동자생존권 쟁취 기자회견 참가
- 4/29 신입회원 환영식 '반갑다 평통사'

-지역 이슈-

대우자동차 판매와 콜트악기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분쇄투쟁

■콜트악기

빠빠지게 일해 세계 1위 기타회사 만들었더니 정리해고라니... 계속 흑자행진 속 해외공장으로 물량을 빼돌려 조합원의 40% 정리해고.

김의균·심자섭 조합간부(인천평통사 회원들) 정리해고, 방중운 지회장(인천평통사 후원회원) 삭발농성투쟁.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자본이 경영악화를 빙자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조치하며 강경탄압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콜트사측이 정리해고로 제시한 소위 '경영악화'는 근거없는 거짓말임이 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조사한 신용분석 보고서에는 콜트악기의 종합신용등급이 'AAO'로 매우 건전한 상태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재무재표를 보면 매출액(당기순이익)이 각각 232억(7억), 214억(8억)으로 경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이 틀렸다는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콜트악기는 세계 기타시장 점유율 1위(약 30% 차지)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 박영호사장은 한국 부자 중 120위인 1,000억대 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콜트악기 사장은 정리해고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는 고의로 1억원의 적자를 내기까지 했다.

조합원들은 콜트사가 정리해고를 하려는 것은 경영악화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인도네시아 공장을 키우고 부평공장 인원을 줄여 고가의 제품만 생산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제 최근들어 부평공장 일이 부쩍 줄어든 사실이 조합원들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콜트악기지회(부평구 소재)는 지난 4월 10일을 기한으로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콜트악

기 노동자 56명의 복지를 요구하며 지난 2월 1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해 현재까지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한편, 콜트사측은 정리해고 조합원들이 인천공장 책임자 윤전무 항의면담을 빌미로 주거침입 업무방해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하겠다고 협박 공문을 보냈다. 또 콜트악기 자회사격인 콜텍(대전)노조에 대해서 콜트악기 정리해고 분쇄투쟁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사전통보도 없이 휴업을 자행했고 이에 맞서 콜텍조합원들도 회사앞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판매

인천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굴지의 기업인 대우자동차판매(주)(대표이사 이동호)는 승용차영업직사원 전원에 대하여 강제 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우자판 사측은 지난 2001년 12월 개인사업자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고정급 70%, 변동급(차량판매수당) 30%로 구성되어 있던 임금체계를 변동급(차량판매수당) 75%, 고정급 25%로 개악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리해고 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노조는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구속, 수배를 감수하면서 투쟁을 벌인다. 사측은 임금 및 조합비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150여명의 조합원을 부당징계했다.

부당발령, 영업방해 등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 받은 10여 건에 이르는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조는 6개월 전면파업 등을 포함해 2년에 걸친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압박감과 생활 불안정 때문에 발생한 정신고통으로 대우자판노조 조합원 한 명과 구사대로 동원된 사무직 직원 한 명이 사망했다.

사측은 지난 해 9월 6일 사망한 고 최동규 조합원(38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회피하며 조문조차 하지 않는 비인간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3일 경북 칠곡 카톨릭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부평 본사로 올라와 노제를 준비하던 유족들은 조문은 물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는 사측 태도에 분개해 장례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9살, 6살 남매와 함께 고인의 시신옆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2일부로 분할회사로 강제전적한 대우자동차판매(주)의 행위는 지난 1월 23일 인천지법의 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판매(주)측은 전사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사실상 판매활동을 봉쇄하고 있다. 이는 전사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정리해고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위법한 대기발령으로 사원들은 기존임금의 40~80%를 삭감당한 상태에서 심각한 생존위기에 놓여있다.

인천평통사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분회활동-

■노동분회

생산직 노동자, 버스 노동자, 건설노동자, 교사 등 주로 노동현장에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만큼이나 실천에 가장 앞장서는 인천평통사의 만형분회입니다. 격주모임을 하는 노동1분회와 월1회모임을 하는 노동3분회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평화, 통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4월에는 한미FTA무효! 고 허세욱 동지 장례 및 추모투쟁에 월차와 조퇴를 내가며 참여했습니다.

■여성분회 - 천지

주로 주부들과 일하는 엄마들로 격주 놀토에 모임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화교육과 각종 행사때 핸드벨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평통사 활동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실천도 합니다. 4월 모임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집으로 이사한 백요순회원 집들이와 새내기 분회원 오수정회원 환영, 김의숙회원 생일축하파티를 하였습니다.

■통일분회 - 부식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평화통일을 몸과 가슴을 느껴보는 평화기행을 분회원들이 준비하고 추진합니다. 작년에 분회활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4월 모임에서는 '전환시대의 논리' 중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한 내용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게 많아 좀더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등산모임

정성준회원님이 이번에 만드셨구요. 첫산행으로 북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산행을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모든 회원,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5월 산행은 20일(일) 계양산 능선산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회원소개-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정란 후원회원님 : 현재 대교학습지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평소 남편인 오상훈 회원을 따라 인천평통사 행사에 간간히 참여해 왔었는데 이번 산행후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인천평통사 5월 행사

■회원교육 - 제2회 평화사랑방

-주제 : '주한미군이 국민혈세로 돈놀이를 했다는데???' -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 : 2007년 5월 16일(수) 오후 7시 *회비 5,000원

-장소 : 인천평통사 사무실(변경될 수 있습니다)

■효순·미선 5주기 추모기행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장갑차에 희생당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대학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사과를 받지도 살인미군을 처벌하지도 불평 등한 한미소과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젓이 미군장갑차는 굉음을 내며 파주, 의정부 국도를 달리며 훈련을 하고있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두 여중생을 죽였던 장갑차가 훈련했던 파주 무건리훈련장이 확장되면서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여중생을 추모하고 미군기지로 인한 고통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미군기지와 우리의 삶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 2007년 5월 26일(토) 당일

-코스 : 인천 ~ 파주 무건리 훈련장 ~ 여중생 사고 현장 ~ 여중생 추모비

* 현장사진 연구소장인 이용남작가의 '미군기지와 삶'이라는 슬라이드 강연과 당시 여중생대책위에서 활동하신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여중생 투쟁의 의미를 들어 봅니다.

-회비 : 성인 15,000원, 청소년 10,000원

■5월 24일은 인천평통사 창립일

지금까지 인천평통사를 함께 만들어 오시고 키워오신 회원,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개의 흙씨가 흩어져 온 산천에 노오란 민들레를 피우듯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자주, 평화, 통일의 꽃들을 피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인천평통사가 되겠습니다.

대전충남평통사 소식

-07 RSOI/FE

만리포 상륙훈련 반대 투쟁-

■서산의 서훈배, 아산의 추교화 회원이 함께 참가

지난 3월 29일 한미연합상륙전 훈련을 규탄하는 집회가 만리포 해안에서 열렸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대전충남평통사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했다. 서산 살면서 학습지노조 활동을 하는 서훈배 회원과 부인 김미경 님, 아산에서 목회를 하는 추교화 회원과 함께 온 정연희 님, 유한경 사무국장이 참가했다. 추교화 회원은 만리포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더 많은 동료들과 참가하려고 연락을 해보았으나 다 들 일정이 있어 함께 하지는 못했다며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하기도 하였다.홍성에서 활동하는 김오열 회원은 당일 홍성에서 해야 할 일을 다른 동료에게 부탁하고 참가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이날 참가한 모든 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회가 진행되는 몇 시간 동안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열심히 구호도 외치고 추교화 회원은 기도회를 방해하는 경찰에게 항의하기도 하며 열과 성의를 다하였다.

투쟁을 하느라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평통사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작은 보온병에 준비해간 커피가 무안해질 정도로 투쟁대오가 늘었습니다.”

(전국학습지도조수석 서훈배 부위원장 회원이 보내온 만리포 투쟁 참가기입니다.)

“우선, 자신의 몸을 불살라 한미 FTA 체결 중단을 외치며 산화하신 허세욱 회원의 명복을 빕니다. 늘 낮은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러나 반드시 학습하고 실천하던 진짜 노동자! 참된 삶을 살다가신 동지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너무 큼니다.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사는 서산에서 멀지 않은 만리포에 갔습니다. 늘 정신없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노라니 곁에 두고도 가보지 못했던 만리포 해수욕장에 말입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정말로 좋은 것들은 그리 멀지 않은 우리 곁에 있지요.

만리포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봄 바다의 비릿한 갯 내음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RSOI>라는 다소 부담 가는 이름의 한미 연합군의 상륙작전 훈련을 반대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간 <투쟁>이었기에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TV뉴스를 통해 한미연합군의 상륙훈련을 반대하는 평통사 회원들의 투쟁장면을 보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알고 있지도 못했구나!’하는 반성을 했었습니다. 더욱 못한 것은 반성이 반성으로 머물 뿐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올 해는 다행으로 유한경 동지를 통해 또 다시 그 훈련이 만리포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행이란 마음과 나름대로 비장한 마음을 주섬주섬 챙기고 보온병에 커피도 담아 만리포에 갔습니다. 상륙작전이 전개될 만리나 된다는 백사장에는 이미 온통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전투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하고 있는 백사장 참호 속에는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훈련과정에 대항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웬지 미군의 훈련을 보호하고 훈련을 반대하는 우리들을 감시 위협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이 따위 공격 훈련에 반대하고 투쟁해야하는가,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간은 몽롱한, 아니 제가 느낀 <비현실적인 일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느낀 바는, 그 상륙훈련의 전반적인 상황이 현실같지 않고 몽환적이거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순식간에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군은 필요없다! 이 땅에서 물러가라! 평화협정 체결하라!>라는 구호를 우리말과 영어로 열심히 외쳤습니다.

역시! 미군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우리의 경찰은 무지하게 신경을 쓰더군요. 아니 오히려 놈들은 상륙정의 난간에 걸터앉거나 수륙양용장갑차의 뚜껑을 열고 우리들을 구경했습니다. 오랜만에 민간인들을 그것도 이상한(?) 민간인들을 봐서 그런가요?

저는 연막탄 폭약냄새와 비행기, 헬기소리, 공기부양정 팬 돌아가는 소리와 물보라 그리고 우리들이 외치는 구호소리에 정신이 멍해지는 듯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가상훈련에서 현실을 보았습니다. 미국은 이런 훈련을 현실화하여 이라크의 수많은 민중들을 희생시키는 등 살인적인 만행을 세계 도처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민족, 우리 동포에게 방아쇠가 당겨진다면 얼마나 살 떨리는 현실이 될 것인가?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기에 상륙훈련은 방어훈련>이라거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이 해괴한 논리가 먹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는 청일전쟁이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는 것을 잊고 지내는 것처럼 늘 잊어버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찾아와 반대하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옳은 목소리들이 있다면 지금은 대항군인 척 위장하여 훈련에 참가하는 우리의 젊은 국군들과 전투경찰들도 나아가 모든 국민들도 진실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유작작한 척하는 미군들의 모습 속에 포착되는 긴장과 당혹감속에서 저는 우리민족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수많은 단체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기 시작했다면 만리포투쟁은 또 다른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은 보온병에 준비해간 따뜻한 커피를 내놓기가 무안할 정도로 투쟁에 함께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5기 2차 운영위원회 및
'6자회담' 회원교육 -

3월 27일(화) 저녁6시부터 대전세무서 옆에 위치한 참여광장에서 5기 2차 운영위원회와 회원교육이 열렸다. 이 날 모임에는 서영완, 원용철 공동대표와 이정순 지도위원, 유병규, 임수규, 유한경, 조주형 운영위원과 윤상열, 유동준, 김미옥 회원과 부천평통사의 박석진 부장이 함께 했다.

운영위에서는 5월 5일을 회원의 날로 정하여 흥성 어린이 큰 잔치와 홍주산성 역사기행에 참가키로 하고 집중기간을 정해 35명의 회원확대 사업을 벌이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을 많이 확대한 두 명의 회원에게는(두 공동대표 제외) 원용철 공동대표가 고액(?)의 상품을 선물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운영위를 마친 후 박석분 평통사 교육팀장을 모시고 '6자 회담 의의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처음 참가한 김미옥 회원은 “사실 평통사 회원 가입은 미안함 때문이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나와는 달리 결혼도 미룬 채 적은 활동비로 상근을 하는 평통사 실무자들을 보고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라도 적지만 회비를 내서 상근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이렇게 시작된 평통사 활동이 나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준다. 이라크 전쟁 후 이라크 갑부의 호화찬란한 생활과 비참한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방송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면 우리가정은, 나와 남편과 두 아이의 삶은 어떻게 상상해보았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대부분의 서민이 그렇듯이 우리의 가정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답답했다. 그런데 오늘 교육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주위동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상열 회원은 “작년 회원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 해는 2.13 조치처럼 행동대 행동으로 즉, 회원으로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것을 머리에 꼭 넣고 간다.”며 소감을 밝혔다.

유동준 회원은 “오늘 교육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실천하려면 가슴 속에 확신이 뜨겁게 자리잡아야 하는데 그동안 스스로 가슴이 차가워졌음을 느껴왔다. 그런데 오늘 뜨거움을 넣고 간다. 한걸음 한걸음 실천하며 따라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수규 운영위원은 “교육 등 평통사 활동이 우리의 생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교육도 나의 생활의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참여했다. 평통사 활동내용을 들으니 이전 팀스피리트 훈련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면이불을 들고 나와 발을 지키던 일이 생각난다. 평통사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로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교육이 진행된 두 시간이 넘는 시간은 평화와 이를 위한 각자의 할 일을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4월 홍성회원 모임-

■내년 만리포 RSOI반대 투쟁 함께하기로 결의 모아

4월 9일 오후 7시 새홍성교회에서 ‘6자회담 의의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박석분 평통사 교육팀장의 교육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홍성군위원회(준)과 공동으로 열린 이날 강좌에 대전충남평통사에서는 이화자, 김오열(홍성YMCA 사무총장), 이번영(홍성신문사), 종명스님, 유요열(새홍성교회 목사, 대전충남평통사 운영위원), 정순희 회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전교조에서는 윤갑상 지회장과 이은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며 홍성신문사에서 윤중혁기자가 민주노동당 홍성군위원회(준) 정상건 위원장과 정원식 사무국장, 전기룡 당원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가야산 터널건설 반대를 위해 싸우는 스님이 함께 자리를 하기도 하였다. 한미 FTA 폐기를 외치며 분신한 허세욱 회원의 활동영상을 보고 쾌유를 기원한 후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은영 전교조 홍성지회 사무국장은 교육 후 뒤풀이 자리에서 “많은 대중이 함께 해야 한미동맹 폐기, 평화체제 등 우리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사님의 말씀에 눈물이 많이 났다.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동료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까 고민도 많았고 외로움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 뭔가 내 자신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교조에서 평화통일 관련 교육을 해야지 하는 바램은 있었으나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을 강사로 모시고 해야 할지 몰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평통사에서 도움을 준다면 한 번 해보고 싶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교육을 듣고 정순희 회원을 비롯하여 참가자들은 내년 홍성에서 가까운 만리포에서 벌어지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독수리연습(FE)에 꼭 참여 하자고 결의를 모으기도 하였다. 이날 함께 자리했던 정상건 위원장과 전기룡 당원이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홍성 다음 모임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 ‘무기장난감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기’ 행사와 6월 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회원소개-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상건, 박석진, 전기룡 님의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대전충남평통사 5월 행사

쫙5/3(목) 저녁 7시 사무실, 3차 운영위원회

쫙5/3(목) 저녁 8시 사무실, 회원교육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강사 박석진)

쫙5/5(토) 홍성으로 떠나는 회원의 날(어린이 큰 잔치 및 홍주산성 기행), 회비 어른 2만원, 어린이 1만5천원(어린이가 세 명 이상일 경우 두 명 만 회비납니다.), 오전 8시 30분 대전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매점 앞에서 출발, 대전 도착은 오후 5시 30분이며 점심과 오후 간식, 그리고 어린이날 선물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안동평통사 소식

■회원행사로 3월 27일에는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회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4월 21일에는 윤지홍, 배용한, 강석주, 김현택, 한철희, 박명배 회원과 가족 등 10명이 예안 김치현 안동농민회 회장님 농장으로 농활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농활에서는 담배밭에 비닐깔기 돕는 일을 했으며 안동 평통사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김창환 회장님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농활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허세욱 열사 장례기간인 4월 17일 김창환 회장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직접 찾아가 문상을 하였으며, 회원들은 4월 21일 농활을 마치고 안동으로 돌아와 한미 FTA를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기꺼이 한 몸 던지신 고 허세욱 동지 조문집회에 모두 참가 하였습니다. 아울러 허세욱 열사 회원돕기 성금으로 25만원을 모금했습니다.

■4월 17일 민주평통의 개성 나무심기 방북단에 강석주, 한철희, 피재현 회원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5월 회원행사는 5월 18일(7시), 19일(3시) 가톨릭상지대학에서 경북지역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우리학교” 상영에 회원들이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 소식

■2월 15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회원 10명이 참가하여 “2007년 정세와 우리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이 강의하는 회원교양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평택에서 경기남부평통사 건설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넓혀나가기 위해 대중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10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님을 모시고 “북핵, 한반도 평화 그리고 평택미군기지”를 주제로 대중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2.13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RSOI&FE 한미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등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서 평택주민 이주 이후 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평택지역의 평화운동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경기남부지역 회원과 주변분들이 많이 참가하여 경기남부 평통사 건설에 힘을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북평통사 소식

-제8차 정기총회-

“유승기 목사님을 신임공동대표로 선출하고 평화의 씨앗을 최다 조직한 김재덕 회원이 모범 회원으로 선출...”

지난 29일(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 평통사 제8차 정기총회가 익산 YMCA 8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8차 총회에는 이세우, 전병생 대표를 비롯하여 전북 평통사 회원 약 50여명과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서영석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와 본부 실무자들, 서영완 대전충남 평통사 공동대표와 실무자들, 그리고 이강실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와 실무자들, 익산민주노총 이진규 의장과 조진권 민주노동당 익산지역위원회위원장, 손인범 익산실업극복운동본부 대표 등 외부인사 약 15명 등 총 65명이 참여 하였다. 이날 총회를 통해 2명의 평화의 씨앗이 새롭게 가입하였다.

박영천 전북 평통사 회원의 사회로 시작된 제1부 정기총회는 전병생 대표의 개회선언, 애국 의례, 사업보고, 안건심의, 임원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북 평통사는 2006년 총회이후 직도 폭격장 폐쇄 및 군산미군기지 확장 저지운동,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익산시민통일노래한마당, 2006년도 평화학교, 군산지역에서의 평화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장난감무기 화초 바꾸어주기 같은 대중사업은 유실되었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회원사업은 거의 부재하였다.

이어 2007년도 사업계획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하고 군산미군기지 아파치 헬기 부대 배치 반대, 평화의 씨앗 500 회원 조직, 작년 유실 되었던 무기장난감 화초 바꾸어주기 등을 사업계획으로 힘차게 승인하였다.

이어 유승기 목사님을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으며 2007년을 이끌어갈 임원은 아래와 같다.

쫓공동대표 : 유승기(전병생, 이세우 대표는 회칙상 2007년도회기까지 임기임)

쫓지도위원 : 이창근, 김은경, 오기주

쫓운영위원 : 현주억, 최영목, 양재석, 김대송, 김유순, 이중구, 박영천, 전미영, 최영이, 서동완, 김동우, 박종일, 조광수

제1부 정기총회를 마친후에는 2부 축하마당 순서가 이어졌다.

제2부 축하마당에서 이세우 공동대표는 환영의 말을 통해 총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으며, 홍근수 상임대표는 “7개 지부 중 나이가 가장 많으며, 군산미군기지, 대중사업 개발 등에서 앞장서 실천하는 전북평통사가 있어 든든하다. 8차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사를 하였다.

이어 서영완 대전충남 평통사 공동대표와 이강실 전북통일연대 대표, 조진권 민주노동당 익산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진규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장의 축하의 말, 서울 평통사 김석민 회원의 진도아리랑 공연, 전북 평통사 활동 동영상보기, 허세욱 동지 추모영상보기, 전북평통사 모범회원상 수여, 그리고 평화를 위한 촛불의식이 진행되었다.

전북 평통사 모범회원으로는 평화의 씨앗을 최다 조직한 김재덕 회원이 표창되었다.

-미군 아파치 헬기부대 확장반대,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4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군산시청 앞에서는 옥서면 확장지역 주민대책위와 군산 미군기지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이 공동으로 '미군 아파치 헬기부대 확장반대,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MP)를 통해 아파치헬기 부대가 강원 횡성군을 거쳐 군산시 옥서면 미 공군 전투비행단 부근 14만6000여 평에 2008년 이전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주민대책위와 시민모임은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군 아파치 헬기부대를 이전을 반대해나섰다. 더군다나 부대이전을 위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토지 수용은 더욱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월례토론모임 <공감> 열려-

“시민의 참여로 토론에 활기가 넘쳐...”

지난 2월 22일, 익산 청소년 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공감모임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공감모임은 역사분과와 청년분과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장기수 선생님들, 일반시민들 등 약 2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날의 주제는 ‘고구려의 멸망과 한반도 핵문제’였으며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오마이뉴스 연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성 선생이 발제를 해주었다. 발제자는 고구려의 생성과 멸망의 과정을 검토하고 “현재 한반도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며 작금의 정세에서 남북공조를 통한 자주적인 노력만이 한반도가 새로운 변화와 발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의 발제를 하였다.

발제가 끝난 다음에는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이 있었는데 한반도 핵문제, 주한미군의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이 토론거리가 되었으며 특히 참여한 한 시민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토론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전북평통사 5월 행사

쭈전북 평통사 월례토론포럼(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쭈평화통일 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주점 6월초(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광주전남평통사 소식

■배종열 조합장 이임식 및 전영남 조합장 취임식

2007년 3월 23일 오전10시 무안에서는 배종열(광주전남평통사 상임대표) 조합장의 이임식과 전영남(광주전남평통사 감사) 조합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 날 이취임식에는 홍근수 평통사 상임공동대표, 김판태 평통사 회원사업팀장, 유한경 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 광주전남평통사에서는 김병균 공동대표, 오승주, 장현권, 최병상, 최종률, 서창호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배종열 상임대표는 80년대에 전농 의장을 맡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으며, 1994년에는 무안군양념채소류유통사업영농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위 규모의 채소농협을 건설하는 등 농민을 위한 삶 자체였다. 배종열대표는 이임사를 통해 “함께 해 온 조합원과 직원들,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어린 마음을 전했다.

조합원들은 송별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늘 친절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눈물로 감사와 헤어짐의 아쉬운 마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배종열대표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 조합장으로 취임하신 전영남 감사님, 축하드립니다.

■4월 회원모임 ‘6자회담 의의와 우리의 과제’

광주전남 평통사는 매 월 1회 회원모임을 통해 주요한 평통사 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4월에는 박석분 교육팀장으로부터 ‘6자회담 의의와 우리의 과제’ 강의를 들었다. 이 날 교육에는 배종열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김병균 공동대표, 전영남 감사, 배요섭, 장현권, 김희용, 최경식, 이용대, 송헌승, 이정강, 최종률, 김기욱 회원과 안희만 나주시민회 사무국장, 김판태 평통사 회원사업팀장, 유한경 대전충남 평통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미FTA저지를 외치며 분신한 허세욱 회원의 활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한미FTA 저지와 각종 한미 군사협정,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북을 겨냥한 군사전략 폐기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끝장내야만이 6자회담의 의의를 살리고 우리민족의 요구에 맞는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개되었다.

교육 후 장헌권 회원은 이런 내용은 널리 알려야 한다며 허세욱 회원의 영상과 교육자료를 받아갔으며, 송헌승 회원(광주NCC 사무국장)은 '5.18 민중항쟁 27주년 추모예배(주최 광주 NCC 등)'에서 허세욱 회원 병원비 모금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날 교육 후 나주 시민회 안희만 사무국장이 회원가입을 하였다.

■3, 4월 신입회원

최경식, 안희만 회원님 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광주전남평통사 5월 행사

5월 회원교육모임 : 10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YWCA 4층 강당,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

우주의 무기화와 핵전력에 반대하는 전 지구적 네트워크

15번째 국제 연간 모임에 대한 브루스 개그논의 보고서

원제 : Coordinator Trip Report Germany/ 19-26 March 2007

Coordinator,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브루스 개그논(Bruce Gagnon)썸, 최성희 번역

독일 담스타트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 참가한 뉴욕 평화비둘기 최성희 씨가 번역해서 보내준 글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원문 및 더 자세한 내용은 www.space4peace.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기와 우주의 핵 전력에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관한 최성희 님의 글은 ‘평화누리통일누리’ 64호(2007년 신년호)에 실려있습니다. -편집자주-

비행기로 처음 도착한 곳은 스투트가르트였다. 그 곳에서 훨씬 더 남쪽에 있는 스바비치그 문트를 거쳐 다시 뮤트랑겐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

나는 1983년 미국의 핵탄두가 장착된 퍼싱 미사일(Pershing II missile)이 배치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다. 당시 뮤트랑겐에서는 주요 비폭력 저항시위가 일어났다. 1987년까지 독일과 그 외 다른 나라에서 온 수 천명의 활동가들이 핵미사일이 적재된 미군 호송차량이 작은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기지와 기지 밖에 있는 다른 마을 사이를 왕복하는 것을 막았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었다.

또 한 번 1987년, 나는 미국과 독일, 소연방의 사람들이 참가한 비무장화를 위한 뮤트랑겐에서 열린 회담에 초대되었다. 모임 중 군대 호송 차량이 기동 연습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고 있었고 우리는 핵차량을 막기 위해 거리에 블록게이트를 쌓았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미군들이 트럭에서 뛰어 내렸으며 독일 경찰들이 모든 이를 끌어가고 차량이 기지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에게 무기를 겨누었다.

1989년, 정의평화 플로리다연합(Florida Coalition for Peace & Justice)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치명적 플루토늄-238이 실린 미 우주 항공국(NASA)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첫 번째 전 지구적 캠페인을 조직했다. 뮤트랑겐에 있는 이른바 평화 모임(Friedens und Begegnungsstätte)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온 첫 번째 국제 조직이었다. 그 독일 평화그룹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1992년 창설되었을 때 회원그룹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의 평화 우주 노력을 위한 독일 내 주도적 지지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3월 22일, 5명으로 구성된 우리 일행은 뮤트랑겐을 떠나 프랑크푸르트에 매우 근접한 담스타트로 가는 북쪽행 기차를 탔다. 담스타트 행사는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단의 한 사람이자 무기증식에 반대하는 국제 엔지니어 및 과학자들의 모임(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Against Proliferation :INESAP)에서 일하는 레지나 하겐에 의해 조직되었다. INESAP과 레지나의 지역 평화 그룹인 담스타트 평화 포럼(Darmstder

Friedensforum)이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헝가리, 그리고 독일의 활동가들이 참가한 이번 모임을 공동 후원했다.

담스타트에는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위성 운영을 계획, 유도하는 유럽 우주운영센터(European Space Operation Centre:ESOC)와 전지구적 감시 계통 체계의 하나인 미국 첩보기지(U.S. spy station)가 있다. 이틀에 걸친 ‘우주 군사화에서 유럽연합의 역할’(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Militarization of Space)이란 주제를 둘러싼 토론, 전략, 계획, 시위는 우리를 바쁘게 했다. 우리는 새 유럽의 안보 국방 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 미사일방어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주를 지배하고자 하는 미국의 계획과 맞물려 있는 지 토론했다.

회담 첫 날 우리는 유럽 우주운영센터 정문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시위를 했다. 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시위는) 다음 날 지역 신문에 실릴 정도로 특색 있고 효과적인 시위였다. 유럽연합은 현재 군사용으로도 쓰일 갈릴레오라 불리는 시민용 연계 위성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유럽 우주국은 시민용 우주국으로 창시되었으며 군사적 우주 개발로 쓰일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 우주항공국처럼 유럽 우주국은 이제 “이중적 용도” 방향으로, 말하자면 우주 기술들이 시민과 군사용의 이중적 목적으로 개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회담의 두 번째 날, 우리는 전지구적 감시 체계의 하나인 미국 첩보장에서 시위를 했다. (우리가 그곳에서 시위를 할 동안 미국 군사 신문인 Stars & Stripes의 한 기자가 사진들을 찍고 우리 몇 명을 인터뷰 했다. 군사신문이 우리를 취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 미국 우주설비들은 지구 전역에 걸쳐 존재하며 우주전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그것들은 군사, 전투용 위성들과 직접 통신할 것이며 전 지구적인 미국의 공격을 감독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모임을 통해 ‘작전적 대응 우주(Operationaly Responsive Space (ORS))’라 불리는 군사 우주네트워크들이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선제공격을 가동하기 위한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에 우주 전쟁 설비들을 확대시키기 위한 미국과 대서양 조약기구(NATO) 프로그램이 러시아를 둘러싸기 위한 전략의 일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국과 대서양조약기구가 ‘미사일 방어’란 이름으로 우주 전쟁 설비들을 동유럽 국가들에 건설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강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최근 체코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미국이 ‘미사일방어’ 레이더를 건설하려는 것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는데, 압도적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내년 모임을 우주 전쟁, 위성 첩보 및 연계, 핵무기 타겟팅, 전지구적 선제 전쟁에 나서고 있는 미국방부의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 (StratCom))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기로 했다.

오마하에 있는 미 전략사령부 본부는 네브래스카 대학을 ‘새로운’ 우주 법을 만들기 위한 주 센터로 만들고 있다. 국방부 관리들이 우주에서의 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 국제법을 사용

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법 전쟁(law fare)’이라고 표현한다. 앞으로 전지구적 안정을 위해 ‘법의 원칙’을 사용하려 하는 이들은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힐 것이다.